

2ROOM MAGAZINE

투룸매거진

ISSUE 35

Contents

- 1 독자 참여 코너**
이 머리로 해주세요
- 2 이방인의 도시**
뉴욕 디자이너가
발견한 안식의 공간
- 3 INTERVIEW**
우리가 다름을 이해할 때
<혼혈 이야기>
운영자 베키
- 4 이방인의 시선**
A Long Wrong Day
- 5 투룸 일상 탐구**
김치 없이 살 수 있을까?
- 6 INTERVIEW**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
세계 보건 기구 김주원
- 7 이방인의 공간**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파리의 풍피두 센터
사이에서
- 8 지속 가능한 투룸 생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끄는 우리 세대의
지속 가능성
- 9 INTERVIEW**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조종사 '나의지금'
- 10 투룸 동남아 리포트**
만 팔천 개의
인도네시아
- 11 투룸 워크 앤 라이프**
경력단절은 숙명일까
선택일까

ISSUE 35 11.2023

투룸매거진에 게재된 모든 글, 그림과 사진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당사의 서면 허락이 없는 무단 배포와 무단 복제를 엄격히 금합니다.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투룸매거진의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ditor's letter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어떤 일을 시작하면 끝내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뜻이지요.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해보면 재밌겠다고 생각한 일을 곧장 실행해 보는 건 저에겐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좋게 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 다르게 말하면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꽤 오랜 시간을 살았지요.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에는 주인공 율리에가 의학을 공부하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사진가로 일하다, 글을 쓰는 등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에도 왠지 모르게 ‘이게 아닌 것 같아’라고 느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또한 그와 비슷하게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디자인과 사진계를 어슬렁거리다 독일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투룸매거진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율리에가 느낀 그 애매하지만 확실한 감정에 무척 공감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 일을 지속하는 게 나에게는 왜 그리도 어려웠을까? 하고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지구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너무 믿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30대 중반에 이른 지금, 지난

20대를 돌아보면 ‘이게 내 길이 맞을까?’ 싶을 때 한걸음 더 내디더 보는 용기를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모든 게 늦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의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한 걸음 더 가봤어도 좋았을 텐데 말이죠.

얼마 전 외장하드를 정리하다 독일에 오기 전 여행했던 백두산 사진을 보았습니다. 백두산 입구에서 천지로 향하기까지, 그 지난한 과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몇 시간이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 봉고차에 올라탄 뒤, 덜컥거리며 비탈길을 달려 백두산 천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는, 그저 하늘과 땅만 보이는 곳에 서있었습니다. “대체 천지가 어디 있는 거야?” 하며 두리번거리니 가이드가 한 방향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방향으로 걸으니 하늘과 점점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눈앞엔 흙길과 하늘밖에 보이지 않았고, 고산지역이라 그런지 머리도 아파왔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한 발자국을 더 내디뎠을 때 시야에 무리가 갈 만큼 거대한 백두산 천지 풍경이 순식간에 눈앞에 가득 펼쳐졌습니다. 우와!라는 탄성이 내질러지지 않을 정도로 숨이 턱 막히는 장관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산길에서 그 압도적인 풍경을 눈에 담기까지 그저 단 한걸음만이 더 필요했더라고요.

그 추억을 떠올리니 그동안 내딛지 못한, 혹은 내딛기를 포기한 한걸음과 그로 인해 놓친 풍경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딱 한걸음만 더 가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남더라고요. 화상통화로 만난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지금 하는 일을 그만하고 싶어질 정도로 몹시 지쳤을 때 백두산 천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 아냐?”라며 “이미 놓친 걸음은 되돌리지 못해. 네가 내딛을 수 있는 걸음만 생각하면 되지 뭘.”이라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물론 “힘들어도 포기하면 절대 안 돼!”라는 말은 아닙니다. 포기도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고, 그와 동시에 자연스럽게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게 인생이니깐요. 좋아하는 일을 드디어 만났을 때, 하지만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이 녹록지 않을 때, 저는 친구말대로 백두산 천지가 눈앞에 쏟아지는 것 같던 장면을 기억해보려고 합니다.

힘들어서 놓아버리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은 늘 존재하지요. 한걸음 더 내딛을 수 없어질 때 투룸매거진이 여러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독자님의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베를린에서
차유진 드림



해주세요

이 머리카

푸석해진 머릿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덩수룩해진 머리
숱. 외국에서 지내다 보면, 한 번쯤 마주하게 된 자기 모습
일 겁니다. 해외 각지의 미용실에서 생긴 에피소드, 미용실
에 가지 않아서 생긴 에피소드를 모아 보았습니다.

1

미용실에서 생긴 일 코로나 시국이었던 2020년 여름, 생
활 지원비로 한 사람당 10만 엔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돈
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꼬불꼬불한 파마를 해 보
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쌍둥이 여
자아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머리가 천연 곱슬이에요.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머리카락을 별로 안 좋아해서 직모로
피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이 얼마나 멋진 스타일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결과 앞머리 정도 집에서 잘라본 적
이 있습니다. 항상 후회했어요. 너무 이상해서 거울 볼 때
마다 슬펐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나라에서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
나요?** 저는 지금 일본에 삽니다. 미용실은 반년에 한 번 정

도 가요. 머리카락이 짧았을 땐 더 자주 갔는데, 요즘엔 길어서 그냥 묶어 버리니까 더 뜸하게 갑니다. 일본에는 미용실이 정말 많고 어디든 다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 군데 정해서 다니지 않고 그때그때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참여자 소개 일본 거주 4년 차, 언젠가 선명한 분홍색 머리카락으로 탈색하고 싶고, 그 머리가 다 상하면 삭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2

미용실에서 생긴 일 항상 평범하게 살아온 저와 남편은 30대가 되자 큰 변화를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현재 뉴욕의 공립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평생 일탈이라고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필요할 때 소소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은 헤어 스타일을 바꾸는 거였어요! 근무 환경이 한국만큼 보수적이지 않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편견을 부숴보고 싶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머리 밑부분의 반을 탈색하고 남편은 전체를 탈색했습니다. 20대도 아닌데 탈색이라니, 하고 처음엔 긴가민가하던 주변 사람들도 막상 하고 나니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제 학생들도 정말 좋아했고요. 단번에 ‘The cool teacher’가 되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결과 코로나 기간에 머리카락이 너무 길게 자랐어요. 남편이 유튜브를 보고 집에서 잘라주었는데, 결국 괴상해졌답니다. 머리카락이야 어차피 자라니까, 하고 내버려 뒀어요. 나중에 미용실 가서 다듬었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나라에서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일 년에 많아야 두 번 정도 한인 미용실을 이용해요. 뉴욕의 미용실은 가격도 비싸고 마음에 드는 미용실을 찾기 어렵습니다. 남편과 함께 탈색했을 때 거의 1,000불 가까이 나왔거든요. 헤어 스타일을 크게 바꾸려면 큰돈이 나가는 각오를 해야 해요.

참여자 소개 뉴욕시를 무척이나 잘 즐기고 다니는 과학 교사입니다. 취미는 로터리 티켓(당일 남은 좌석을 복권처럼 추첨해서 저렴히 파는 티켓)으로 뮤지컬 보기, 우연히 발견한 맛집 시도해 보기입니다.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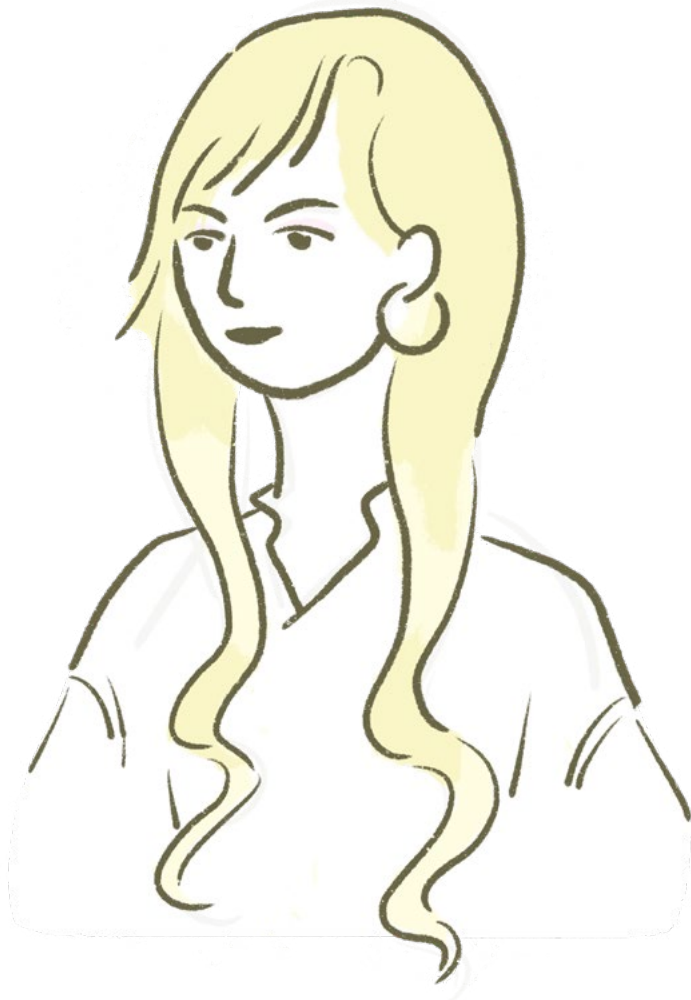
미용실에서 생긴 일 해외에 살면서 새롭게 해 본 머리 스타일은 없어요. 원래 하던 머리 스타일을 아주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결과 머리카락 길이와 숏, 이미 금발인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감당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어학원 같은 반에 있던 미용 계열을 일했던 친구에게 탈색을 부탁했는데, 그 친구는 커트나 탈색에 전문이 아니라며, 자신 없어했어요. 그래도 믿어 보고 염색약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그 친구에게 탈색을 맡겨 봤어요. 결론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잘 됐는데,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끊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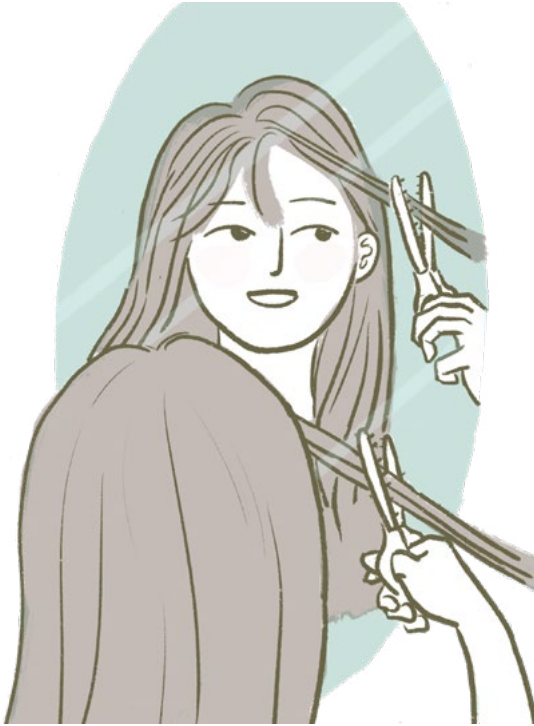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나라에서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프랑스에 있을 땐 미용실에 한 번도 안 갔어요. 아시안 머리카락은 다루기 어렵하다고도 하고, 제 금발인 머리카락을 망치기 싫었거든요.

참여자 소개 지구인 27년 차, 금발은 아직 포기할 수 없다.



4

미용실에서 생긴 일 런던살이 첫 해, 회사 앞 미용실에 가 봤어요. 숯가위에 대해 한 십 분 설명한 결과, 미용사가 창고 깊숙이 있던 숯가위를 가져왔는데, 도저히 그 미용사에게 숯 쳐달라고 할 수 없겠더라고요. 원하는 헤어 스타일을 포기했어요. 머리카락을 말리는데, 저보고 숯이 많다며, 계속 눈치밥만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런던에서 머리카락은 안 잘라요.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결과 소문난 ‘똥손’인 제가 코로나 시기에 숯 가위랑 미용 가위를 잡아 본 적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들 뜯어말렸지만, 어차피 그땐 사람들을 못 만나던(못 만나도 되는) 시기였기에 신나게 유튜브 선생님과 잔뜩 잘라냈어요. 한껏 가벼워진 머리에 뿌듯했던 기억이 있

어요. 생각보다 마음에 무척 들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한국 미용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냐며, 크게 야단맞았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나라에서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안 갑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 이후로.

참여자 소개 런던 거주 7년. 머리카락에는 최대한 손을 안 댑니다. 염색과 파마는 사치입니다.

5

미용실에서 생긴 일 독일의 미용실에서 특별히 새롭게 해본 스타일은 없지만, 친구들과 미장원 파티를 벌였던 적이 있어요. 대학생 시절, 함께 아르바이트하던 독일인 동료 레베카와 미장원에서 겪은 최악의 경험담에 대해 얘기 나누는 날이 있었어요. 그걸 듣던 조지아 출신의 동료 마리가 마침 자신에게 미용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줬어요. 그렇게 동료들과 분기별 미장원 파티가 시작됐습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결과 마리가 미용기구를 가져오면, 저와 레베카는 집에서 음식을 만들고 샴페인과 안줏거리를 사 왔어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동안, 마리는 저희 둘의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다듬어 주었습니다. 유

머와 입담이 좋은 친구라 지금까지 독일에서 만난 최고의 미용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과 미장원 언니처럼 역할극을 하면서 배가 아플 정도로 깔깔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용실에 가지 않았던 덕분에 친구들과 타국 생활 속 즐거운 추억을 남길 수 있었어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나라에서 미용실에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독일에서는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해요. 계속 기르다가 한국에 가면 짧은 단발로 잘라요. 그리고 다시 길렀다가 한국에 가면 자르는 걸 반복하고 있어요.


참여자 소개 독일 생활 10년 차, 늘어나는 새치로 고민이 많은 투룸매거진 편집자입니다.





노요 디자이너가
 발견한
 안식의 기쁨
 기쁨들

어느덧 제법 그럴듯한 뉴욕 이방인이 되었다. 쉽지 않았던 이곳에서의 긴 시간 속에서 나를 위로하고, 동시에 내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들로 오늘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본다.



고등학교 시절, 독서실의 갑갑함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일단 버스를 타고 코엑스로 향했다. 넓은 쇼핑센터 안에 입점해 있는 큰 음반가게에 특별한 목적 없이 들어가 어디서 들어본 듯한 아티스트들의 음반들을 괜히 만지작대며 시간을 때우곤 했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앨범 자켓들을 보고 있으면 짝 막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수험생활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대학생이 된 것 같기도 했고, 공부만 하는 현실과는 먼 어떤 세련된 삶에 닿을 수도 있겠다는 환상을 갖기도 했다. 언젠가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그 레코드 가게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싶다. 그곳에서의 기억이 학

교-집-독서실을 쳇바퀴 돌듯 다녔던 기억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남아있다. 내 삶에 그 음반가게가 없었다면, 아마도 나는 무미건조하고 무채색 일색인 삶을 살고 있었을 테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뉴욕으로 건너와 살면서 코엑스 음반가게와 같은 나만의 공간을 찾아다녔다. 이곳에서 애정을 품게 된 대부분의 공간들은 오랜 시간 살아남아 그 특유의 고유성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그 공간에 있으면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아름답고 고요한 클로이스터,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없어 수더분함이 느껴지는 반지하의 재즈클럽, 한풀 꺾인 저녁의 활기로 가득한 미드타운의 밀롱가들, 액자들로 채워진 공간에 고즈넉하면서도 진지한 분위기로 가득한 체스 클럽, 그리고 피아노에 맞춰 고전노래를 흥겹게 떴창하는 분위기가 묘하게 포스트워시대를 연상시키는 피아노 바까지... 그 공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왕래가 차곡차곡 쌓여 형성된 섬세한 정서는 그 자체로 온전함을 선사한다.

뉴욕의 수많은 매력적인 공간들 속에서도 유독 나의 발걸음을 오랫동안 멈추게 한 공간들이 있다. 마치 고등학교 시절에 도망치듯 찾아간 음반가게처럼. 이방인으로 살며 매일 반복되는 회사생활을 감당하면서도, 그 공간들은 나에게 어떤 향수를 불러 일으키고 위안을 가져다 준다. 한결같은 편안함으로 나에게 영감과 위로가 된 뉴욕의 공간들을 소개하고 싶다.



Dashwood Books 입구

Dashwood Books

- 33 Bond St., NY

주로 사진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작은 서점 Dashwood는 진(zine)부터 절판돼서 구하기 힘든 책까지 섭렵하고 있다. 서점을 관리하는 미와는 언제나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정답게 말을 걸어준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사진들과 비슷한 결의 책들을 골라 옆에 쌓아주기도 하고, 최근에 가본 좋았던 전시에 대해 소소한 잡담을 나누기도 한다. 누군가의 예리한 시각으로 채워진 사진 매체 속에 파묻혀 이리저리 유명하다 보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삶의 모양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무심하게 지나치며 수십 번

도 본 일상의 일부분도 선명하고 특별하게 보인다. 그렇게 우연히 마주치는 새로운 시선의 조각들이 모여 나의 세계를 단단하게 채워주기도 한다.



반지하에 간판도 없어 지나치기 쉬운 Dashwood Books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다양한 직업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진에 대한 열의를 나누며 자유롭게 소통하는 열린 공간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운영자인 데이빗과 미와는 음악, 패션, 영화 등 여러 예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작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할 책을 고르는 손님들과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Dashwood는 독립 출판도 하는데, 잘 알려지지 않거나 서브컬처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독

특하고 흥미로운 시선을 존중하는 서점에서 정성의 집약체인 사진집들을 구경하고 있다 보면 기분 좋은 공기에 둘러싸이는 듯하다.



웹사이트

High Valley Books

- 882 Lorimer St, Brooklyn, NY

High Valley Books는 브루클린 그린포인트에 위치해 있다. 과월호, 빈티지 패션잡지와 서적을 주로 다루는 이곳은 간판 없이 아파트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친구의 소개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존재조차 몰랐을 것이다. 불편하지만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 방문 시간을 예약하고 가야 한다. 평범한 외관의 집 초인종을 누르면 서점을 운영하는 Bill이 문을 열어주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서점 투어를 제공한다.



빈티지 패션 잡지들이 많은 High Valley서점



High Valley Books의 1층. 다양한 희귀 서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

거실에는 Bill이 수집하는 사진집, 희귀본, 고서가 진열되어 있고, 지하에는 80-00년대에 발간된 다양한 잡지들이 월별로 빼곡하게 꽂혀있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외부와 단절된 어떤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뽕양게 먼지가 쌓인 채 이리저리 널브러진 책들 사이에서 열심히 뒤적거려야 하는 곳이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나름 질서가 잡혀있다. (가끔 고양이도 책들 사이에서 빼꼼 나타나 존재를 뽐낼 때도 있다!) 목적 없이 잉여롭게 지하서재를 뒤적이다 보면, 1800년 후반에 발간

된 당시 유행하던 일러스트 도록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세월에 켜켜이 묵은 책들을 펼쳐볼 때면 보물창고를 뒤지는 것 같고, 미지의 세계와 천천히 연결되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지하에는 오래된 잡지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다.



책방 주인 Bill은 이곳을 책 동굴(book cave)이라고 부른다

웹사이트

Hungarian Pastry Shop

- 1030 Amsterdam Ave, New York, NY

뉴욕에서 가장 큰 성당인 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을 마주하고 있는 동네 카페 Hungarian Pastry Shop. 창밖으로 보이는 고딕 양식의 성당에서 간간이 들리는 종소리가 카페에 평화로움을 더한다. 1961년에 오픈한 이후로 한결 같이 자리를 지켜온 곳. 오래된 만큼 그 소박함을 간직하고 있어 나쁜 아니라 수많은 뉴요커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공간이다.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는 Hungarian Pastry Shop

불분명한 비자문제로 고민하던 날들, 의지하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뉴욕을 떠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을 때 특히 자주 찾곤 했다. 초롱꽃같이 작은 조명, 펜과 노트, 휘핑크림이 기분 좋게 올려진 커피와 달달한 자허토르테처럼 손에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우물 밑바닥에 가라앉은듯한 시간들을 여유로운 추억으로 빚어준다. 이 공간엔 꼭 집어 설명할 수 없는 특유의 무심한 매력이 있다. 커피 무한리필, 맛있는 헝가리안 케이크, 오래된 테이블과 의자, 음악 대신 채워지는 사람들의 대화소리, 꾸밈없이 넉넉한 공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이 뉴욕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인심 좋고 소박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Hungarian Pastry Shop에서 마주한 커피 테이블



많은 작가들이 이곳에서 책을 완성하기로 유명한 만큼, 카페의 오른쪽 벽에는 다양한 책표지가 담긴 액자들이 걸려 있다. 이곳에서 쓰여 집필된 책들이라는데, 타네히시 코츠처럼 알려진 작가의 책들도 몇 있다. 50년이 넘도록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언제나 진정성을 내뿜는 특별한 카페만큼 이곳을 방문할 때면 나 또한 그런 낭만에 가닿는 것 같다.



이 카페에서 집필된 책들의 표지가 벽에 전시되어 있다.

뉴욕시티발레

- 링컨센터

링컨센터의 탁 트인 광장은 언제나 짙은 도시생활에 숨결을 불어넣어 준다. 계단과 분수, 흰 트라버틴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건물들이 서있고, 메인 광장을 지나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을 걷다 보면 빨려 들어갈듯한 직사각형의 인공 호수, 잔디 지붕의 파빌리온이 보인다. 공연이 없는 날에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드물어 특유의 고요한 분위기가 마음 차분하게 만든다.



링크센터 뒤편에 있는 한가한 휴식 공간

내가 자주 찾는 뉴욕시티발레단의 건물은 오페라 하우스를 마주 보고 왼쪽에 위치해 있다. 이 극장을 설계한 건축가 필립 존슨은 건물 안에 들어오면 보석함 속에 온 듯한 느낌이 들도록 무대를 디자인했다고 한다. 거대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조금 과한 듯 보이지만, 서늘한 푸른 조명과 특별한 무대미술이 없는 깔끔한 무대에서는 숭고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보석함처럼 디자인된 극장의 상층리에



발레단에서는 시즌마다 현대 미술가들과 협업한 작품을 극장 강당에 전시한다.
지난 봄에는 네덜란드 아티스트 그룹 '드리프트(Drift)'의 작품이 설치되었다.

춤의 매력은 국적과 언어를 초월한다는 것에 있다. 정교한 몸의 선, 섬세한 근육의 움직임만이 언어인 곳이다. 뉴욕시 티발레를 대표하는 발란신(George Balanchine)의 작품들은 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듯한 기인열전에 가까운 안무로 유명하다. 그래서인지 무용수들의 자유로운 몸짓과 보이지 않는 절제된 힘에 압도되어 공연이 끝날 즈음엔 내적 눈물을 흘릴 때도 많다. 발레는 춤뿐 아니라 음악과 의상, 미술적인 요소에도 많은 힘을 들이는 장르다. 화려한 무대의 활용, 의상과 현악기의 조화, 물방울이 퍼지듯 흐트러졌다가 퍼즐처럼 되맞추어지는 수많은 무용수들의 입체적인 군무를 보다 보면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을 때가 많다. 열렬한 커튼콜을 마치고 극장을 나올 때면 새삼 일상 속에서 느끼던 구질구질한 권태 대신 기분 좋은 기대감이 차 오른다.



공연이 끝난 뒤 무용수들의 마지막 인사

발레단에서는 30세 이하에게는 \$30에 오케스트라 좌석을 제공하는 ‘30 UNDER 30’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조금 더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 덕분에 나의 20대의 문화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기도 해서 감사한 마음이 든다.

웹사이트

빠르게 변화하는 대도시의 삶은 나만의 삶의 속도를 잃게 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속도로 살기 원하는지보다 세상이 원하는 것에 훨씬 더 시선을 두게 된다. 돌이켜보면 나 또한 뉴욕의 이방인으로 살며 이 도시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 허둥대기도, 조바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 흐름 가운데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자기만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공간들을 발견하는 경험은 잔잔하게 지쳐있는 이방인의 삶을 견뎌내게 하고, 바깥 세상에 고정되어 있던 흐릿한 시선을 다시 내 삶 쪽으로 선명하게 회복시켜 주었다.

앞으로도 뉴욕에서의 삶을 이어가며 따뜻하고 소박한 공간들을 탐험할 예정이다. 나만의 호흡과 리듬을 되찾고 싶을 때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은 곳, 그곳에서 누리는 감정과 에너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곳들로 이방인의 일상을 충만하게 채우고 싶다.

글쓴이 소개 **송해나**

인스타그램

뉴욕 브루클린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중고책방에서 책을 뒤적거리는 걸 좋아한다.

우리가 다름을 이해할 때

<혼혈 이야기 The Halfie Project>
운영자

베키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베키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혼혈 이야기 The Halfie Project>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때 교환학생으로 처음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10여 년을 한국에서 살았다는 그는 최근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혼혈인들의 삶 속에 담긴 여러 서사를 나누고, 혼혈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혼혈 이야기>는 어느새 한국계 혼혈인들의 커뮤니티로 성장하고 있다.

<혼혈 이야기 The Halfie Project>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나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어요. 6년 전, 한국에서 한국계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사람들이 가지는 혼혈인에 대한 무례한 편견을 많이 접했어요. 억울한 상황을 겪으면서 나만 외부인이 된 것 같은 감정을 느낀, 굉장히 혼란스럽고 외로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한국계 혼혈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렸는데 신기하게도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자각을 하게 된 계기였죠. 세상에 나와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 살

고 있는 다른 한국계 혼혈인들을 찾아서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혼혈 이야기 The Halfi Project> 로고

미국에서 다른 한국계 혼혈인들을 만난 적은요? 미국에서도 혼혈인이 겪는 디아스포라적인 경험과 감정, 문제들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혼혈로서 사는 것에 대해 고충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받기 어려웠고요. 그럴수록 ‘내가 유독 이상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죠. <혼혈 이야기>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프로젝트였는데 점차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됐어요. 많은 혼혈인을 만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 졌거든요.

그렇다면 <혼혈 이야기>의 첫 시도는 무엇이었나요? 팀을 꾸리는 거였어요. 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았는데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비디오그래퍼, 에디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고, 비디오그래퍼, 포토그래퍼이자 현재 혼혈 이야기 팟캐스트 공동 진행자인 Jay라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이후 어릴 적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입양된 Michael이라는 친구도 비디오 에디터로 팀에 합류했죠. 스카이세디(Skycedi : 미국 이름 ‘Cedric’ 과 한국 이름 ‘하늘’을 합쳐 만든 활동명)는 사실 2019년에 진행했던 <혼혈 이야기>의 첫 공식 인터뷰이였는데요, 지금은 <혼혈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영상의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고, 저와 함께 공동으로 전반적인 운영과 기획을 하고 있어요. 현재 Jay는 직업적인 이유로 더 이상 같이 못하게 됐고, 마이클은 개인 사정 때문에 노르웨이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서로 아이디어들을 주고받지만 촬영, 팟캐스트, 인터뷰, 편집등 모든 일은 현재 저와 스카이세디 둘이서 하고 있어요.

<혼혈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혼혈로서 가진 삶의 형태, 개인의 경험은 정말 다양해요. 한국 사람들에게 혼혈로서 사는 것이 어떨 것 같냐 물으면 보통 어렵거나 힘들다고 대답해요. 하지만 혼혈로 살아가는 게 단순히 부정적인 서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무수한 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국계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가 존재해요. 한국 문화

자체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와 형태를 가지고 있듯이, 혼혈인들의 디아스포라도 하나로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정의하는 혼혈에 대한 개념과 범위 자체를 넓히고 싶어요.



2019년 <혼혈 이야기>의 첫 공식 인터뷰이였던 세드릭. 현재는 약혼자이자 공동 운영자가 되었다.

혼혈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적인 상황 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혼혈의 역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50년대 초 한국전쟁이 있던 때 G.I. Babies(한국 전쟁시기 미군과 한국인 사

이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 같은 역사요. 그 시절의 이야기가 한국인들, 미국인들에게도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움도 많았고 상처가 깊었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50년대에 태어난 혼혈인들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제 2세대 한국-미국 혼혈인들이나 1세대 혼혈인들의 자식들이 과거의 기억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고자 해요. 혼혈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야기되는 일들이 여전히 적거든요. <혼혈 이야기>를 통해 한국계 혼혈인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을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잊히고 이야기되지 않았던 혼혈인들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하고 싶어요.

영어로는 <The Halfie Project>인데 한국어로는 혼혈 ‘이야기’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궁금해요. 영어로는 딱히 혼혈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다 떠올린 게 ‘halfie’라는 단어인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에게 인식이 좋은 단어는 아니에요. 거기에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을 주기 위해 ‘project’라는 단어를 붙여 <Halfie Project>로 정해졌어요. 한국어로는 ‘혼혈’이라는 직관적인 단어가 필요했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이야기’가 붙어 <혼혈 이야기>가 됐어요.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만큼 우리를 어떻게 대표하고 소개할지가 이름에서 잘 드러나는 게 중요했어요.



정체성이란?

혼혈 이야기 공식 웹사이트에는 인터뷰와 직접 겪은 이야기, 문화 관련 콘텐츠가 업로드 된다.

<혼혈 이야기>의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을 보면 사진, 라이프스타일, 영상, 팟캐스트, 뉴스 등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고 있어요. <The Halfie Project> 유튜브 채널도 활발하고요. 각 분야마다 콘텐츠는 어떻게 기획되고 제작되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간직했던 질문에 대해 주로 다뤄요. 다른 혼혈인들이 던져주는 아이디어를 채택하기도 하고요. 구독자나 팔로워들에게 어떤 주제에 대해 써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렇게 쌓이고 쌓인 주제들을 콘텐츠로 만드는 거죠.

각 개인이 직접 쓰는 에세이 <Photography - People>의 작가나 <Halfie Project>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인터뷰이는 어떻게 섭외하나요? 유튜브 인터뷰 영상은 초반에는 주변 혼혈인들을 인터뷰하다가 아는 사람의 지인이거나 혹은 직접 연락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Photography - People>은 인스타그램이나 다른 SNS를 통해 여러 한국계 혼혈인들을 찾아서 연락하고, 웹사이트에 올라가는 글을 써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한 명씩 직접 섭외하면서 <혼혈 이야기>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죠.



한국에서 프랑스 와인을 소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프랑스계 한국인 친구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해 주세요. 팟캐스트는 스카이세디와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스카이세디는 진행을, 저는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한 리서치를 담당하고요. 팟캐스트에서는 인터뷰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한국인 어머니와 다른 나라 국적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혼혈의 경우 한국어를 못하거나, 한국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친구들의 비율이 높거든요. 그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주제들을 깊게 파헤쳐서 알려주는 게 저희 팟캐스트가 하는 일이에요.



1960년대 파독 간호사였던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아들이 직접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모습. 무척 뜻 깊고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실제로 다른 한국계 혼혈인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경험이 있었나요? 60년대에 독일에 파견된 한국인 간호사 어머니와 독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가 최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셨어요. 친구의 제안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죠. 다만, 친구의 부모님은 영어를 못하시고 독일어 혹은 한국어로만 소통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결국 두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그 친구가 자신의 부모님을 직접 인터뷰했어요.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독일어와 한국어로 과거의 이야기를 묻고 듣는 시간 자체로 의미 있었어요.

인터뷰 영상 보러 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단순히 내가 겪은 일들을 풀어내기 위한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타인에게서 배울 점이 정말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개인으로서 겪었던 세계가 확장되는 경험을 했겠어요. 커뮤니티를 만들면서 초반의 방향성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처음 팀원들과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정할 때는 모든 혼혈인과 인터뷰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보편적인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잡을

지 고민하기도 했고요. 당시엔 한국계 혼혈인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듣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 대부분 자신의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계 혼혈의 이야기를 심는 사람이 더욱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만난 인터뷰이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처음으로 나에게 이 질문을 물어준 사람이야. 이전에는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궁금해하지 않았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혼혈 이야기>의 재정 지원을 위해 본업인 성우, 광고 모델, 연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혼혈 이야기>가 한국계 혼혈인들의 커뮤니티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지금 한국 사회에서 혼혈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생겼고, 교육적인 부분도 이전

보다 조금은 열리고 있죠. 해외 생활을 하고 들어온 한국인들의 수도 늘어났고요. 예전에는 혼혈이라는 단어에 부정적인 인식이 컸다면, 이제는 단어가 가진 무게가 달라졌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는 여전히 ‘한국인’ 혹은 ‘미국인’ 둘 중 하나로 정의되는 걸 선호하는 편이지만요. 한국은 점점 글로벌화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과 앞으로 한국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록하고 싶어요. 우리 세대, 우리 이전 세대의 혼혈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요.



혼혈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큰 응원과 격려를 베풀어 주신 이재갑 교수님의 마지막 전시에서

앞으로의 <혼혈 이야기>는 어떻게 나아갈까요? 정부나 학교 등에서 관련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아요. 학교 내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국제결혼을 한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해요. 다문화(multicultural)와 혼혈(bi-racial)은 나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품어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우리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알리고 싶어요. 사람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처럼 한국계 혼혈인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키워나갈 수 있길 바라요.

<혼혈 이야기> 운영자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한국 혼혈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는 게 가장 먼저 떠올라요. 지금처럼 팟캐스트 제작을 위한 리서치도 계속하고 싶고요. 최근에는 혼혈인으로서 겪은 자전적 이야기를 엮어 책을 쓰려고 준비 중이에요. 부모님 세대와 저와 같은 친구들이 좀 더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민자인 저의 어머니의 경험과 혼혈로서의 제 경험을 나누는 게 목표예요. 번외로,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사람들에게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위해 현재 공동 운영자인 스카이세디와 열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워크숍 '모두를 위한 반인종차별 창작 활동'. 한국 교육자들과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혼혈이야기>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베키의 개인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한국어를 더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프랑스에 한국인 입양인들이 많은데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전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프랑스어도 배우려고 계획 중이에요. <혼혈 이야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업인 모델, 연기자, 성우 일도 계속 늘려나가고 싶어요.

사실, <혼혈 이야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어요. 미국과 한국의 혼혈의 경우, 군인 가정인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예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혼혈 이야기> 첫 인터뷰가 나왔을 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제가 혼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원치 않

으셨는데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혼혈인으로서 겪은 디아스포라가 1세대 이민자로서 당신이 겪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이해하게 되셨더라고요. <혼혈 이야기>가 더욱 성공해서 부모님께 기쁘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웹사이트

유튜브

A Long Wrong Day

독일 영화학도의
영화 <하지> 제작기



영화 <HAZI : A Long Wrong Day>



하지,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낮이 제일 긴 날. 주인공 하지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아주 긴 하루를 담은 영화 <HAZI : A Long Wrong Day>는 나의 석사 졸업 영화다. 이 이야기는 나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다.

2018년 초봄, 내가 서울 ㅅ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아빠는 근처 ㅎ동에서 주방기기설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고향인 ㄱ시에, 아빠는 서울에 떨어져 살았던 유년시절에 비하면 물리적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심리적 거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멀어져 있던 시기였다. 지척에 살면서 얼굴도 못 본 지는 2년, 통화를 한 것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통화에서 아빠가 하필 “돈 좀 있냐”라는 말을 해서였을까, 나는 불쑥 아빠의 가게에 찾아가고 싶어졌다.



영화 <하지> 속 하지

독일 출국을 앞두고 있던 나는 먼저 안심하고 싶었던 것 같다. 아빠의 안녕을, 아니 하다못해 그냥 그 자리에 있음을 확인한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날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빠의 가게가 바로 내다보이는 골목길에 다다랐을 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사람들이 가게 안을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었다. 그 안에 아빠는 없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 “저 ***씨 딸인데 아빠 어디 갔어요?” 하고 물을 수도 있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광경을 한참 바라보던 나는 결국 그냥 돌아섰다. 저 문 너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내 발목을 붙들 것 같은 두려움이 나에게 “어서 여길 떠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다.

독일에 온 후로도 나는 자주 그 골목길에서 있었다. 가끔은 스스로를 비겁하고 이기적이라고 느꼈고, 뭐가 그리 무서웠나 싶기도 했고, 어떤 날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했

다. 그리고 자주 아빠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일었다. 그럴 때마다 몸은 독일에 있지만, 영혼은 아직 독일에 도착하지 못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영화로 풀어보고자 했다. 나는 그 문 앞에서 돌아섰지만 내 영화의 주인공 하지는 기어코 진실을 마주하게 만들어 보자. 어떤 시인이 말했듯, 이야기가 된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길 바라면서.

먼저 나는 ‘이 개인적이고도 지극히 한국적인 정서를 독일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하는 조바심에 구구절절 사연을 써서 촬영감독 S에게 보냈다. S는 이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우리 영화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다. 정작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였다. 졸업 영화를 같이 만들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NRW 영화미디어재단의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함께 매달려서 해준 것도 S요, 영화 촬영에 자신의 물적, 인적 자원을 총 동원 해준 것도 S였다. 엄마가 나에게 늘 인복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새삼 느꼈다. 인복도 인복이지만 <하지>는 정말 여러 행운이 켜켜이 쌓여 완성된 영화였다. <하지>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후반작업까지의 모든 시간이 코로나 시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코로나로 인해 일하던 영화관이 휴업해 제작비 마련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위에 언급한 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에 뽑혔다. 미팅을 했던 배우들이 코로나로 모두 독일 생활

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마침 유효한 비자를 소지 중이던 이가은 배우가 기꺼이 한국에서 다시 독일로 와주었다. 게다가 촬영현장에 스무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도 아무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 큰 차질 없이 주어진 시간 안에 촬영을 마칠 수 있었다.



놀이터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스태프들



라인강변에서 촬영한 날

물론 촬영이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간 것은 아니었다. 언어 문제는 정말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우리 팀은 한국인 감독과 배우, 연출부와 더불어 독일인들로 구성된 제작부와 촬영·조명부, 그리고 이란에서 온 조연출과 러시아에서 온 사운드 슈퍼바이저가 있는, 그야말로 글로벌한 팀이었다. 나와 가는 배우는 독일어를 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 살고 있었던 경혜 배우는 독일어를 못하기에 모두가 함께 있을 땐 영어로 소통했다. 하지만 내가 배우들에게 연기 디렉팅을 할 때엔 ‘당연히’ 한국어를 썼다. 그런데 이 ‘당연’이 타인에겐 당연하지 않아 촬영 중 작은 트러블이 발생했다. “Cut”을 외치고 나면 배우들에게 달려가 수정사항을 전달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다음 테이크를 진행했는데, 제작팀 친구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무엇 때문에 테이크를 다시 가는지 언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처음엔 솔직히 좀 황당했다. 내 머릿속은 이미 디렉팅해야 할 사항들로 꽉 차서 비워내기 바쁘는데 신경 써야 할 게 늘어나다니, 그의 요구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다. 그날 촬영을 마친 뒤, 나는 가는 배우에게 억울함을 토로했다.

“
**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가 지배하는 환경에
처음 처한 게 아닐까요?**
”



메이크업 담당 스탭이 오지 못한 날 직접 메이크업을 하는 배우들

가는 배우의 통찰이 내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갔다. 아무리 스탭들이 독일어로 번역된 시나리오를 읽고 참여한다고 해도 그들은 당연히 대부분의 한국어 대사를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벌써 며칠 째 최소 10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진행되는 영화를 찍고 있다.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온 나에겐 낯선 언어 속에 둘러싸이는 일이 익숙하지만, 그들에게는 고역이었던 것이다. 그 무력하고 답답한 기분, 나도 뭘지 잘 알지. 그다음부터는 NG가 나면 “Schauspiel Problem!(연기 문제!)”을 외치면서 뛰어갔다.

그렇게 11일간의 촬영이 끝났다. 촬영지를 정리하고 돌아보는데 이상하게도 후련하다기 보다는 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의 저변을 들여다보니 ‘내가 또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다’는 공허함이 있었다. 독일에서 언어가 완

벽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곤두박질쳤던 자기 효능감이 영화를 찍으면서 잠시나마 회복됐는데, 집으로 가는 걸음마다 다시 똑똑 떨어지는 게 느껴졌다. ‘영화 아직 안 끝났어! 할 일이 산더미야, 정신 차려!’ 하고 마음을 바빠 다독였다. 울 거면 진짜 다 끝나고 울어!



퀸대성당 앞에서 헤드스텝들만 모여 인서트 촬영을 했다.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지난한 후반 작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편집과 후시 녹음을 위해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다. 1차 편집본을 완성한 뒤, 수업 시간에 독일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온라인 시사를 했다. 짐작대로 많은 질문이 쏟아졌는데, 그 내용은 내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자막에 나온 SNS가 뭐냐”(독일에서는 SNS를 Soziale Netzwerke라고 한다), “대사 중의 ‘베짱이야 뭐야’의 뜻이 뭐냐”(이솝우화 <개미와 베짱이>를 모르다니!) 등 한국에서는

상식의 영역이라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부분들이 독일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마지막 촬영 날 스태프 및 배우들과

나를 진짜 충격에 빠뜨린 것은 한국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 없는 정서를 독일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였다. 가장 큰 예로, 영화에서 독일에 머문 지 오래된 유학생 캐릭터인 ‘린’이 “나는 아직도 가족들에게 이기적이라고 욕을 먹는다”고 한 장면에서 “왜 가족들에게 욕을 먹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한국인, 특히 2030 한국인 여성들에게는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아마 머릿속에 대강의 스토리가 그려질 것이다. 상상력이 좋다면 그녀가 왜 가족을 떠나 해외로 갔는지도 떠올렸을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이 독일인들에게는 몰입방지턱이었던 것이다. 아찔했다. 독일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자니 한국 관객들에게 영화가 너무 친절하게 보일 테고, 그렇다고 “이거 다 알지? 넘어간다?” 하



이가은 배우가 연기한 하지

한 때는 내가 너무 내 삶을 떼어내서 영화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 더욱 자기 객관화를 못 하고 있다고 느껴 더 이상 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10여 년에 걸친 영화과 학생 신분을 벗어난 지금 내가 결국 선택한 것은 ‘나로부터 출발한 이야기’였다. 몹시 수다스러운, 그래서 독일에서는 자유롭게 말도 많이 못 해서 어떡하냐는 우스개 소리를 듣곤 하는 나는 여전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그것들을 다 꺼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영화의 다음은 너무 비싸고 어렵다. 그럼에도 나는 다음을 기약하고 싶다. 그것이 반드시 영화가 아니어도, 어떤 형태로든.

<하지>를 준비하고 완성하기까지 수년이 흘렀다. 아با와 나 사이에도 그만큼의 세월이 쌓였다. 사실 한국에 갔을 때 유학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아با에게 전화가 왔다. 꼭 <하지>의 마지막 장면 같아서 퍽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공교로워서 조금 무섭기도 했다. 나는 하지처럼 그 전화를 받

지 않았다. 대신 “난 잘 지내고 있으니 아빠도 잘 지내라”라고 문자를 남겼다.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의 나는 나를 힘들게 만든 아빠도 불행하길 바라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잘 살고 있길 바라는지 혼란스러웠는데 문자를 보내면서 답을 알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빠의 가게가 보이는 골목길 위에 무력하게 서 있지 않는다.

영화 <하지> 트레일러 보기

영화 <하지> 줄거리

유럽 여행의 마지막 날, 하지는 10년 전 한국을 떠나 홀로 독일로 이주한 아빠를 만나기 위해 독일에 온다. 그러나 아빠의 편지에 적힌 주소지에 더 이상 아빠는 살지 않고, 아빠가 운영한다던 한식당은 폐업했다.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함에 휩싸인 하지는 아빠 식당 앞에서 종업원이었던 린과 마주치고, 둘은 오늘 하루 사라진 하지의 아빠를 함께 찾아다니기로 한다.

글쓴이 소개 **채지혜**

영화 석사를 졸업하고 드디어 인생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던 ‘학생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독일에서(혹은 한국에서) 앞으로 뭘 하면 좋을지, 뭘 할 수 있을지 골몰하고 있습니다.

분명 김치 없이도 밥을 먹는데 문제없는 삶이었다. 구대륙으로 이민 온 지 어느덧 10년 차, 이제는 냉장고에 비축된 김치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이 되었다. 세계 이곳저곳에 살고 있는 투룸에디터들의 일상 속에서 김치는 어떤 존재일까?

포장김치, 엄마의 햇김치와 혜원의 김치사에서 - 차뉴진 에디터, 베를린 -

종가집 포장김치의 등장은 당시 바쁜 커리어우먼으로 일 하던 엄마를 김장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솔직히 엄마가 갓 버무려낸 햇김치를 정말 좋아했던 입장에서 우리 집 식탁 영토를 넓히기 시작했던 종가집 배추김치의 등장이 조금 섭섭했다. 그 이후로 김치산업은 내 예상을 훨씬 웃돌게 흥하며 배추김치 외에도 다양한 김치선택지를 우리 가족에게 제공했고, 덕분에 나는 대량생산되는 김치의 맛을 하나씩 섭렵해 갔다.



비축한 김치가 한 봉지만 남아있으면 마음 졸이는 이방인이 되었다.

종가집 김치와 함께 성장한 나는 국밥집에 가지 않는 한 김치 반찬 ‘따위’는 잘 건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7년 가까이 살던 서울 자취방에 놓여있던 소형 냉장고에도 김치의 자리는 없었다. 그러다 스물일곱 살에서 스물여덟로 넘어가던 겨울, 나는 모종의 이유로 한국을 떠나 독일로 이주했다. 엄마의 햇김치 외에 김치에 대한 애정을 품은 적 없던 나는 독일에 온 지 겨우 2주 만에 김치와 라면을 못 먹어서러운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 되어 있었다.



김치만 있어도 이방인의 마음은 든든하다.

한국 식재료를 파는 온라인 몰에서 김치를 주문한다. 직접 만드는 게 훨씬 저렴할 텐데도, 도무지 그럴 엄두는 나지 않는다. 주문을 하고 이틀 후면 소중하게 포장된 종가집 김치가 나의 베를린 집으로 배달된다. 냉장고 한구석에 가만히 누워있는 김치 봉투의 자태는 내가 가족들과 살던 부천 집 냉장고에서 보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종가집 김치에 물리는 느낌이 들면 비비고로 슬쩍 변심해보기도 하지만 다시 종가집으로 회귀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혜원이 선물한 식사. 그가 직접 만든 김치가 완성한 한 끼였다.

포장김치만 사 먹는 내 주변에는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는 부지런한 이방인들도 있다. 투룸 에디터 혜원이 식사에 초대해 줬을 때였다. 혜원이 “김장했는데 먹어볼래요?”라고 묻길래, 별 기대 없이 받아먹었던 김치. 혜원과 독일인 파트너가 함께 만들었다는 비건 김치에서는 포장김치에서는 맛볼 수 없는 싱그럽고 시원한 맛이 났다. 아까운 듯 조심

스럽게 입에 넣은 김치는 아삭아삭 소리로 존재감을 뽐냈다. 이상하게도 혜원의 김치는 할머니가 만들던 특유의 자극적이지 않던 습습한 김치를 떠올리게 했다. 그날 이후로 종가집 김치에게 시큰둥해진 마음은 숨길 수 없게 됐지만, 누군가가 직접 만든 김치를 먹는 즐거움을 알게 됐다.

함께하는 김작, 나누는 기쁨 - 전혜원 에디터, 베를린 -



김장 하루 전 날, 모든 재료를 모아 놓는다

베를린에 처음 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이 끝나면, 언제나 비빔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뭐든 많이 먹었다. 식당에서 파는 김치를 내일 못 먹

을 양까지 밥 위에 수북이 쌓아 먹었다. 일을 관둔 뒤 가장 소원했던 것은 김치였다. 정기적으로 사 먹기엔 평소 먹는 양을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되지 못했고, 이주 초기엔 다들 그렇듯 김치를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몇 달 뒤에 한국인 친구가 생겼다. 기회만 나면, 서로 집에 초대하고 초대받으며 그리웠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 먹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당시 함께 지냈던 독일인 플랫폼메이트가 집을 오래 비우는 날이면, 주방을 차지하고 김장을 벌였다. 혼자 김장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그땐 부끄러웠던가, 김치를 처음 보는 독일인들에게 이것저것 설명하고 관심받기가 단지 성가셨던가. 여하튼 김장하는 날에는 혼자서 두 달은 거뜰히 먹을 양을 만들었다.

발효 준비 완료!



김치를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쉬웠다. 쉽다 보니 담그는 양도 매번 늘어났다. 양이 늘수록 김치를 나누어 먹는 일에 관대해졌다. 김치를 함께 먹기 위한 이유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초대받은 집에 김치를 싸들고 갔다. 김치는 호감과 애정의 표시였다.

독일에서 김치 없이 살 수야 있겠지만, 김치가 있었기에 친구들과 나눈 기쁨이 늘어났다. 그 기쁨 없이는 잘 살아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김치 귀신 아빠와 파트너
그리고 김치 작인 엄마
- 미지수 케디터, 동남아와 한국 -

“사 먹는 김치는 조금만 오래되면 금방 맛이 없어진다.”
“밥이랑 김치만 있으면 한 끼는 충분하다.”고 지금도 누누이 말하는 김치 매니아 아빠와 “OO 김치가 맛있는데...”라는 아빠의 주문에 어떤 김치든 똑딱 맛깔나게 담아내는 엄마 사이에서 다양한 홈메이드 김치를 먹으며 자랐다. 집에 항상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가 있는 행운(?) 덕분에 집 김치의 소중함은 잘 몰랐다.



김치 장인의 손놀림

처음으로 집을 떠나 캐나다에서 살 때는 새로운 것들을 맛보는 재미에 김치나 한식 없이도 잘 살았다. 어느 날, 캐나다인 하우스메이트는 내게 김치를 만들 줄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엄마가 김치 만드는 걸 옆에서 자주 봤지만 혼자 직접 만들어 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어떤 독일인 친구는 언니가 독일에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 먹는다고 말했다. 독일인도 김치를 만들어 먹는데 한국인인 나는 김치를 만든 적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만들기 번거롭고, 안 먹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내손으로 김치를 담그진 않았다. 파트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만나고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접한 독일인 파

트너는 나보다 먼저 혼자 김치를 담갔고, 집에 김치가 떨어져 가면 빨리 더 만들어야 한다고 난리를 칠 정도로 정말이지 김치에 푹 빠졌다. 파트너와 처음으로 한국에 갔을 때 엄마가 만든 비건 김치에 외국인 사위가 제대로 빠져버렸다. 참고로 우리 엄마 김치는 김치볶음밥도 만들기 아깝게 맛있다.



알타리, 곁절이, 파김치, 도라지 무침

비건이 되고 니 김치는 안 먹는다고 손도 안 대던 아빠는 이제 비건 김치도 맛있다고 잘 드신다. 여행 중 독일인은 엄마 김치를 먹으러 한국에 가고 싶다고 했다. 어이없지만 그래서 벌써 다시 한국이다. 집에 왔더니 아빠는 냉장고에 있는 김치가 전부 비건이라고 했다. 알타리 김치, 파김치, 배추겉절이. 깻잎지와 궁채나물 장아찌까지 냉장고가 엄마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만에 맛있는 집 김치와 잡곡밥을 수혈하니 기분 좋은 만족감이 온몸에 퍼졌다. 과연 독일에서 알타리 무를 키워서 김치를 만들 날이 올까?

내작고 볼척객에서 홈파티 대표 메뉴로 - 주원 테일러 케디터, 샌프란시스코 -

처음 미국으로 이주했을 때 가장 놀랐던 것은 샌프란시스코의 거대한 아시안 이민 커뮤니티가 뿜어내는 아시안 음식뿐이었다. 일식, 태국식, 베트남식, 인도식, 말레이시아식, 미얀마식, 그리고 중식은 백인들이 가끔 시도해 보는 이색별식이나 이민자의 향수를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지인들의 일상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반면 샌프란시스코에 한인 커뮤니티가 그리 크지 않았던 탓인지, 한식은 지금과 달리 다른 아시안 음식에 비해 한 발자국 뒤쳐져 있었다. 접근성 반 호기심 반을 이유로 나

는 여러 아시안 음식들을 섭렵했다. 김밥이 그리울 땐 스시 부리토를, 설렁탕이 그리울 땐 베트남 쌀국수를, 볶음밥이 당길 땐 태국식 볶음밥을 먹었다. 딱히 한식이 그리울 틈이 없었고, 자연스레 김치를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불청객 신세의 신김치를 구제하고자 급히 만든 김치 짜글이

한국에서 손님이 방문하거나 한식을 만들어 먹을 때는 김치를 샀다. 오랜만에 냉장고에 들어찬 김치는 특유의 시큼한 마늘냄새를 푹푹 풍겼다. 나보다 매운 한식을 더 잘 먹을 만큼 한식을 좋아하는 파트너지만 냉장고 한편에 들어앉은 김치를 불청객 취급했다. 파트너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었다. ‘미국 김치가 더 냄새가 강한가? 좋은 브랜드가 아닌가?’하며 의심해 볼 정도였다. 불편한 손님을 초대할 것처럼 절로 파트너의 눈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이길 만큼 김치를 사거나 만들어 먹고 싶은 욕망은 없었다.



바베큐보다 김치 볶음밥이 더 인기를 끌었던 바베큐 파티

치를 사자마자 볶아 놓는 것이다! 자글자글 파기름 위에서 김치 냄새의 시큼함은 달콤함으로 변신했다. 김치볶음밥은 우리 커플의 파티의 시그니처 메뉴로 자리 잡기도 했다. 바베큐파티를 할 때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사이드로, 비건이나 채식주의자, 글루텐프리, 혹은 유당불내증을 가진 친구들을 초대할 때에 안전한 식사 아이템이 되어 주었다.

나는 관념으로의 김치를 사랑한다. 주 메뉴가 되거나 반찬이 되기도, 찌개가 되었다가 전이 되기도, 물컹물컹하게 먹거나 바삭하게 먹을 수도 있는 김치의 유연함.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자기만의 이상적인 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김치가 한국음식의 상징인 것이 자랑스럽다.

나만의 간단 김치 레시피를 개발하다 - 김현지 디자이너, 베를린 -

한국에서 부모님과 살았을 때, 우리 집 김치냉장고는 항상 다양한 종류와 숙성도의 김치들로 가득했다. 그때로 잠시 돌아갈 수 있다면 밥상 위에 배추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이렇게 반찬이 김치 3종류만 있다고 입이 삐죽 나온 채로 엄마에게 불평을 토로하던 나의 머리를 콩 쥐어박으면서 “배가 불렀네”라고 말해주고 싶다.



발효 중인 김치

베를린으로 이주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별로 김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 당시에 장기로 살 집을 구하는 동안 머물렀던 한인 세어하우스에서는 김치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처음으로 외국인들과 지내는 세어하우스로 이사를 했을 때도 첫 한 달 정도는 김치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한인 세어하우스에 사는 다른 친구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김치를 먹은 순간 지난 한 달간의 김치의 부재가 크게 다가왔다. 그 길로 바로 아시아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 먹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에 김치를 아끼지 않고 푹푹 넣어 먹고 싶다는 생각에 스스로 김장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자주 담그기 때문에 김장에 최소한의 시간만 쓰려고 나름의 간단한 레시피도 만들어 냈다.



묵은지로 끓인 김치찌개



반찬으로도 제 역할을 하는 김치

최근에 김치와 관련해 굉장히 뿌듯한 경험을 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직원들이 많다. 몇 달 전, 회사 오피스에서 동료들과 작게 파티를 할 일이 있었는데, 몇몇 동료가 한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내가 웃으면서, “혼자서 파티 요리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김치 단지 하나는 가져올 수 있어!”라고 했는데 동료들이 기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진짜 꼭 가져올 거지? 그날 꼭 오피스로 출근할게.”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배추를 사서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비건 김치를 담갔다. 피시 소스대신 국간장으로 대체해서 담근 비건 김치는 정말 시원하고 맛있었다. 사실 파티 당일까지도 가져갈지 말지 고민했는데, 가져갔던 김치 한 단지가 거의 동나도록 대부분의 직원들이 맛을 봤고 정말 좋아했다! 파티 메뉴였던 피자 위에 김치를 올려서 와구 와구 먹는 동료들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일

세계 보건 기구

김주원



누구든 이주민이 될 수 있는 시대. 세계 이곳저곳에는 전쟁, 빈곤, 전염병의 파도 아래 목소리가 묻혀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는 일, 상상만 하던 사회 정의가 세상에 실천되는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제네바의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 주원을 만났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원님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HO 세계보건기구 본부에서 이주민과 난민의 보건 이슈를 다루는 팀에 소속되어 있어요. WHO 지역 및 국가 사무소 간 네트워크를 조정하고, 진행되는 프로젝트를 관리해요. 이주 관련 회의를 개최해 해당 주제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국가 역량을 키우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제네바

제네바에서의 일상은 어떤가요? 보통 5시 정도면 퇴근을 하는데요, 여름에는 레만 호수에서 수영을 하거나 친구들과 피크닉을 해요. 주말에는 하이킹을 가기도 하고 겨울에는 스키를 타러 가요. 이곳에서의 일상이 처음에는 단조롭

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자연이 아름답고, 도시가 안전하고,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인터내셔널 한 곳이어서 살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터내셔널한 도시라, 어떤 환경인지 궁금해요. 제네바는 여러 국제기구와 대형 은행들이 많이 위치해 있어요. 스위스 출신보다 외국인이 훨씬 많이 살고 있죠. 본인이 선택해서 타지에 사는 사람들, 그중에서 공공을 위한 일(public sector)을 일하는 사람들, 또 다른 타지로 떠날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친구들 중에는 개발도상국에 살았거나 앞으로 다시 살 예정인 사람들이 많고요.



체르마트에서 하이킹하다 만난 검은 얼굴이 특징인 스위스 양



주말의 일상인 산을 오르는 주원

잠시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WHO에서 일하면서 접하는 이주민과 난민 보건 이슈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주는 더 이상 먼 주제가 아니에요. 저희 팀이 2022년에 발행한 ‘세계 난민 및 이주민 건강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 수는 현재 약 10억 명에 이르렀어요. 이는 무려 전 세계 인구의 1/8에 달하죠. 난민과 이주민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정신 건강 이슈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겪어요. 저희는 의료 시스템에 있어서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원 역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큰 기관이다 보니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이 무척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본부에서의 일이고 기구 자체가 크다 보니, 아무래도 기관 내의 복잡한 권력 구조가 있어요. 항상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야 하죠. 그리고 아시아인들은 소심하거나 친절하다는 편견에 맞서 더 적극적이고 직설적인 소통을 하곤 해요. 제가 잘한 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이메일을 쓸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는 유럽계 백인 50대 남성이다’ 주문을 걸며 간결하게 쓰는 거죠.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면서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아 보여요. 적응하기 전까지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타국에 살다 보면 미묘한 차별(micro aggression)과 직접적인 인종차별(racism), 둘 다 겪게 되는데요. 가나에 거주할 당시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때, 항상 따뜻하게 위로해 주던 친구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님의 인터뷰를 보여줬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서 “Take it at face value.” 즉,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라는 말에 크게 공감했어요. 말의 숨겨진 의미를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는 것이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자 여성으로서 편견에 대처하는 방법이라고요. 혹시 내가 어려서, 여자라서, 아시아인이라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을 되새기면서 힘을 얻어요.

주원님이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는 막연히 사회 정의를 이루는 일을 꿈꿨어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자연스럽게 사회 시스템에 대한 고찰, 사회 시스템이 개개인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관심을 가졌죠. 제네바에 오기 전까지 다양한 해외 생활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제대로 한 해외생활은 중국 상하이에서였고, 그 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년 교환학생을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국제기구가 다루는 분야를 국제 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이라고 칭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막연하게 꾸던 꿈을 구체적인 직업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됐어요.



제네바 레만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여러 국가와 도시를 거쳐 제네바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과테말라, 부르키나 파소, 세네갈 등 여러 개발도상국으로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서서, 가나 아크라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에서 2년 넘게 근무했어요. 이후 영국 런던에서 석사 유학을 하며 공중보건학(MSc Public Health for Development)을 공부하고,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 방글라데시 파견을 기다리다가 코로나 여파로 제네바로 오게 됐어요. 나열해 보니까 굉장히 많고 복잡한데, 사실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패턴이에요.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와 함께

WHO에서 근무하면 여러 중대한 위기 상황과 만나기도 할 것 같아요. 저는 2022년부터 WHO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되지 않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어 긴급회의가 빈번하게 열렸어요. 정말 많은 내/외부 이민자와 난민이 국경을 넘거나 우크라이나 안에서 이주하거나 대피했어요. 이들이 우크라이나 주변 국가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을 했죠.

이주민과 난민은 어떤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나요? 이주민과 난민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에요. 재난 속에서 폭력과 추위로 고통받으면서 보건과 교육, 안전의 혜택에서 소외받아요. 생계를 꾸려가기 바빠 의료기관을 찾지 않거나, 타국의 의료 기관에서 받을 언어적, 문화적인 차별과 본국 송환을 두려워하고요. 이러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바꾸는 일이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적인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O는 규준과 표준을 만드는 국제기구여서 표준을 하나 만드는 데도 많은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해요. 하지만 한 번 통과되면 큰 임팩트를 가져와요. 각 국가의 정책과 연결되기도 하고, WHO와 함께 한다는 성명을 낼 수도 있고요, 직접 후원을 하기도 해요.



주말 하이킹을 하다 마주친 외시넨 호수(Oeschinen See)

앞으로도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역할이 중요할까요?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척 방대해서 제가 일하고 있는 WHO 이민자 보건 팀에 집중하자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거나, 목소리를 내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의 확장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들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저희 팀과 기구가 해야 하는 일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죠.

국제기구와 NGO들의 최종 목표는 기관들이 다루고 있는 세계 문제가 없어져서 기구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구와 관련 있는 문제가 더 커질 때마다 기구에 대한 관심과 예산, 펀딩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 동안 WHO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정말 커졌던 것 같아요.

국제기구에서 일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국제기구 진출 자체보다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분야를 꾸준히 파고들면 기회는 자연스럽게 올 거예요. 국제기구도 다양하고, 기구 내에서도 하는 일도 다양해요. 먼저 보건, 환경, 교육 등 큰 섹터를 정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업무 분야를 정하는 걸 권하고 싶어요. 보통 관련 분야 석사 학위를 받고, NGO나 국내 기관에서 비영리 분야 경력을 쌓고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수많은 과정을 지나온 지금의 나에게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사회 정의’를 꿈꾸던 어린 날의 저는 이제 ‘사회 정의’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예전에는 전쟁, 빈곤, 질병을 생각만 해도 힘들고 가슴 아파했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게 되었죠. 앞으로도 어린이, 여성, 난민, 이주민들처럼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해 일하고 있을 거예요.



날씨가 무척 좋은 날, 라우터브루넨에서 트래킹을 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에 꾸준히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힘든 현실에 우울해만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태도가 결국에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은 낙관적이면서도 현실과 절충한 생각인데요, 저

스스로 긍정적인 성장이라고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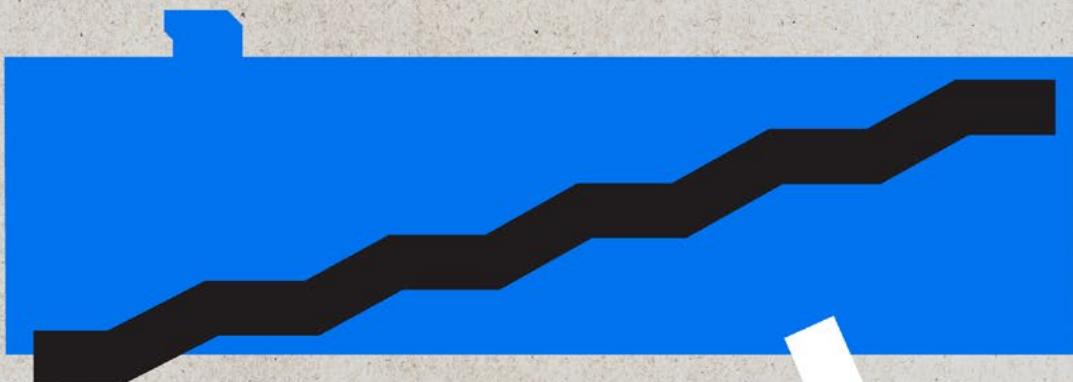
어린 시절의 꿈이 정말 현실이 되었네요.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개인의 삶과 커리어가 균형 잡힌 삶을 잘 살아가고 싶어요. 국제기구에도 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중에 아시아 여성은 더 드물어요. 고위직에 진출하는 아시아 여성이 되어 제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많은 예시들 중 하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런던의 테이트 모던과

파리의

퐁피두 센터 사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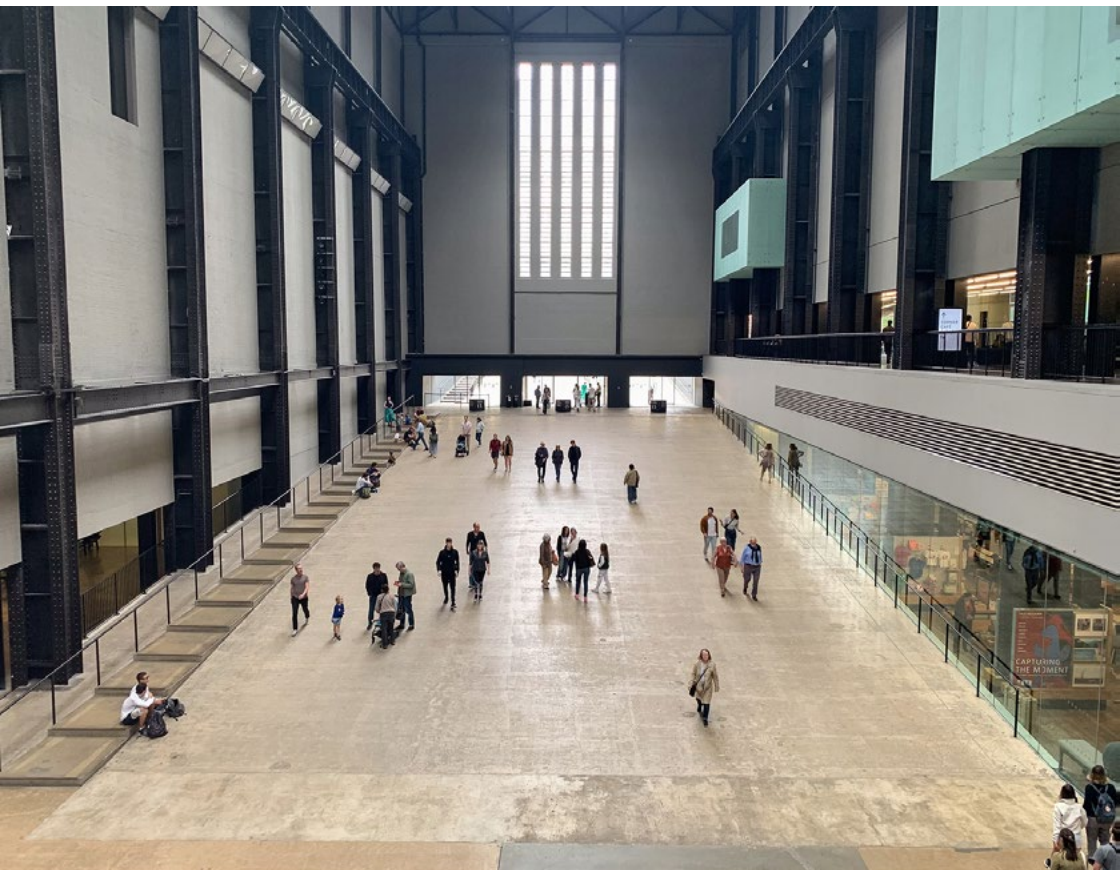


테이트 모던의 정문 입구. 하늘의 구름과 테이트의 점묘 타이포가 겹쳐 보인다.

테이트 ‘모던’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그곳은 더 이상 ‘지금’의 미술관이 아니다. 흔히 모던과 컨템퍼러리라는 표현으로 현대미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모던은 현대를 의미하지 않는다. 컨템퍼러리도 더 이상 동시대로 번역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심지어 이제는 동시대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오래 전의 것으로 여겨져 그 말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테이트(Tate)의 이름은 미술 공부를 오랫동안 해온 나에게는 뉴욕의 모마(MoMA)와 함께 머스트 투 두(Must to do) 리스트에 항상 자리했다. 십 년 전 뉴욕의 모마에서 느꼈던 것처럼, 실제로 방문해 보면 머릿속의 이상화된 이미지와 다르게 여느 평범한 미술관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찰나에 알았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가 수상

했던 터너상(Turner Prize)의 주최인 테이트는 이제 대중들이 터너상의 수상자를 쫓지 않는 것처럼 그 이름 위에 먼지가 내려앉았다.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느꼈던 뜨거우며 동시에 매우 차가운 작업들의 온도를 테이트 모던의 입구인 터빈홀(Turbine Hall)에서는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테이트 모던의 터빈홀

그럼에도 우리가 테이트를 방문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테이트 모던의 상설전시는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다. 층마다, 각각의 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지만 그 번호가 시간적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

문에 어느 층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다. 심지어 중간 문으로 들어가도, 오른쪽부터 시작해도, 왼쪽부터 시작해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한 공간에 활동시기가 전혀 다른 작가들의 작업이 큐레이팅되어 있다. 과거와 현대의 만남에 대한 의미보다는 순서에 구애받지 않는 하이브리드적인 의미에서 인상 깊었다. 이에 익숙하지 않은 관람객들은 순서를 제시하고 명확한 테마가 있는 편이 더 접근하기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테이트 모던에서 열린 미국의 흑인인권운동 관련 전시

그러나 큐레이팅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작업을 위해서 작동한다. 어떤 방식으로 놓고 어떤 관계 속에서 작품이 보이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큐레이터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곳의 방대한 아카이브를 저명함이나 평판에 우위를 두지 않고 다양한 결속으로 보여주는 것은 엄청

난 큐레이션이 전시 뒤에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좋은 전시를 만드는 것은 작품뿐만 아니라 좋은 큐레이션이 있어야 가능하다. 파리에서 퐁피두 센터(Centre Pompidou) 전시를 보면 가끔 큐레이션에 아쉬울 때가 있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처럼 테이트의 역사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테이트 모던 전시실에 전시된 작품들

런던이 지금의 미술에서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여러 갤러리를 가보아도 흥미로운 작업들을 만날 수 없었고, 어느 미술관에 가도 생기로움은 없었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사실은 미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작업들이 이 도시에 이렇게나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소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새로움과 산뜻함은 없지만 이토록 풍요한 자료와 역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런던이 다시 미술의 정상에 깃발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유학하는 한국 친구들이 흔히 프랑스 미술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다는 평을 한다. 나는 이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할 수도 없다. 프랑스가 그들의 문화적 우월함에 취해있는 것은 참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잘난 이가 잘난 것을 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영국에서도 그들이 가진 과거의 영광을 느낄 수 있었지만 프랑스의 그것과는 달랐다. 왕은 스스로가 으뜸임을 말할 필요가 없듯이, 영국은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 이것이 현시점에서는 신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런던을 방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배가 부르면 사냥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자처럼 지금은 평야에서 늘어지게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의 사나운 발톱과 날카로운 눈빛은 언제나 뒤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다.

겸손이 미덕인 한국 사회에서 온 나는 프랑스에서 살며 이곳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미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겸손이 미덕이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없는 듯하다. 런던에서 한 분기동안 홈스테이를 하며 그들도 마찬가지로 느꼈다. 로열의 젠틀을 표방하는 그들의 피상적 우아함은 파리 사람들의 방식과 달랐지만 겸손의 부재는 똑같았다.

런던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오랜 기간 동안 모두 무료 개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해 달라는 표지가 곳곳에, 층층마다 크게 쓰여있다. 친절하게도 콘택트리스(비접촉) 카드로 지불이 가능한 편리한 시스템은 금융의 수도라는

별명과 거리낌 없이 어울렸다. 하지만 5파운드, 10파운드의 구체적인 값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테이트에서 봤던 큐레이팅과 괴리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유별나게 유교적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부의 과시를 꺼리는 프랑스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아온 날들에 익숙해져 버린 것인지 나도 모르게 이런 방약무인한 태도에 움찔했다. 이 감정은 뉴욕에서 느꼈던 낯섬과 닮아 있었다. 고층 빌딩 사이 아스팔트 길을 걸으며 한없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시선은 바닥을 향했다. 그런 만큼 더욱 더 건물 위 하늘보다 땅과 가깝다고 느껴졌다.



비접촉 결제가 가능한 기부함

사대주의적인 태도가 환상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들의 역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런던에서 느꼈던 동요는 뉴욕에서와 달랐다. 유럽에 살며 이들의 문화에 적

응을 했는지, 나이를 먹어 얼굴이 두꺼워진 건지 어느덧 나는 더 성숙해져 있었다. 런던의 기차역에서 내리는 순간 알았다. 어릴 적 가졌던 압도됨이나 두려움, 압도감은 없고, 오직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흥분의 떨림만이 있었다.



테이트 모던 기념품샵과 그 앞에 위치한 모금함

글쓴이 소개 **유연주**

한국에서 미술대학 졸업 후 프랑스로 유학을 왔다. 10년 넘게 미술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파리 8 대학에서 문예 창작 석사 1학년을 다시 시작했다. 친구들과 함께 아티스트 콜렉티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이끄는
우리 세대의 지속 가능성



“너와 나의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해.
또 다른 빙하기가 찾아오면 어떡해.”

검정치마의 원곡 <Antifreeze>를 리메이크한 백예린의 목소리가 내 귀를 맴돈다. 온 사방에서 이상기후와 산불 등의 불길한 소식을 전해 들으며 가사를 다시금 곱씹어본다. 정말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겁먹은 채로 손 놓고 포기하기엔 이르다.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한다.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어릴 적 고민이 오늘날의 지속가능성 연구자로

혹시 꼬꼬마 시절에 글쓰기 주제로 자주 나오던 ‘아나바다 운동’과 ‘오존층’을 기억하시는가? 만약 방금 고개를 끄덕였다면 아마 나와 같은 세대일 것이다. 어린 시절에 바라본 미래는 꽤나 희망찼다. 로봇이랑 전기차들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쓰레기가 없고 알약 하나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세계를 상상했다.

어른이 되어서 바라본 현재는, 나의 상상력에 비해 다소 현실적이긴 하나 대부분 낙관적이기도 하다. 아직 하늘에 자

동차가 떠다니는 시대는 열리지 않았지만, 전기차는 확실히 도로를 달리고 있다. 어릴 적 나를 공포에 시달리게 했던 오존층 파괴 문제도 요즘은 꽤나 잠잠하다. 하지만 반대로 새로운 문제들이 도래했다. 지난 7월 유엔은 지구 온난화 시대에서 지구가 끓어오르는 ‘Global boiling’ 시대가 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면 나는 요즘 어린이들도 논술시간에 이런 주제를 다루며 겁먹고 있을까, 괜한 걱정애 사로잡히기도 한다. 어렸을 때의 내가 오존층을 생각하며 그랬던 것처럼.

환경을 주제로 백일장을 쓰던 어린 나는 무럭무럭 자라 유럽에서 지속가능성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되었다. 요즘 뉴스의 정치사회면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이지 않을까? 트렌드를 따라 연구를 시작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게 된 건 주제의 무궁무진함 때문이었다.

영단어 ‘Sustainability’를 우리말로 번역한 ‘지속가능성’은 우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늘 먹는 사과와 지속가능성을 비교해 보자. 사과는 사과나무에 열리는 열매의 이름이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더라도 사과와 바나나를 헷갈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과에 해당하는 품목과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은 그 단어의 사용자에 따라서 범위가 두루뭇술해진다. 지구환경에 대한 지속가

능성에서부터 기아 문제나 사회 내의 차별 문제까지 단어 하나에 내재할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만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두루뭉술함은 주제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있어 어렵거나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선 그 정의를 탐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한계를 찾아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책임인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등을 고민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특히 다른 어느 곳도 아닌 네덜란드에서 지속가능성을 연구한다는 것에 의미가 깊었다. 네덜란드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지속가능성은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우선 사람들이 친환경을 선호한다.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 다니며, 지역버스마저 100% 전기에너지를 활용한다. 풍차로 유명한 나라만큼 풍력에너지를 많이 활용하고, 집집마다 지붕에 태양열판이 붙어있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한 자동차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학교에서 몇 km 미만의 거리에 살고 있는 직원들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출장을 갈 때도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기차를 이용해야 한다.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회사에서 나무 심는 날을 운영하거나, 종이 없는 회사를 지향하는 등의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노력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짚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자칭타칭 ‘환경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건, 유럽연합에 속한 선진국 중 한 나라로서 방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외에도, 개발도상국에게 그들이 오염을 ‘외주’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의 오류(Netherlands fallacy)이다. 네덜란드를 포함한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이다. 선진국들이 외부 개발도상국들에 수출한 온갖 공장들의 오염물과 쓰레기들을 포함하면 절대 이들을 ‘환경 선진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듯 지속가능성은 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라 사이의 국경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선진국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가치 없다 여겨져선 안된다. 앞서 말한 나라 사이의 국경은 의미가 없다는 말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지금 나라 간의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구 살리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가 재보다 낫다, 재가 나보다 못하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말, 뭐라도 하는 게 중요하다.

또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지속가능성이 환경문제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듯 지속가능성은 정말 넓은 범위의 문제에 해당된다. 유엔의 지속가능발

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총 17개의 목표가 선정되어 있는데, 빈곤 퇴치부터 생태계 지속, 그리고 국제평화까지 다양한 이슈를 포함하고 있고, 각 목표마다 세부 목표가 정해져 있다. 여러 목표 중에서도 특히 도시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입장에서 바라보자. 고산 지대 관광지로 유명한 베트남의 사파(Sa Pa) 지역은 소수민족인 몽족(Hmong)을 여행 가이드로 고용하여 지역문화 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그들의 고유 전통 예술과 문화도 계속 전승되고 있다. 지속가능성 발전 목표에 문화전승과 지역발전이 포함된 것이다. 베트남이 당장 네덜란드처럼 대체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베트남을 포함한 모든 나라는 각자의 위치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누가 더 잘하냐의 경쟁구도로 다가가면 끝이 없어 보일 수 있다. 반대로 다 같이 잘하기로 약속하고 노력하면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칠 수 있던 부분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요즘 세상살기가 팍팍하다는데, 타지에서 이방인으로 지내자니 내 한 몸 유지하며 사는 것도 버겁고, 내 입에 밥 한술 더 넣는 게 급급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개인도 일상에서 해낼 수 있는 정말 사소한 일들

이 있다. 이를테면 쌓여있는 이메일 지우기, 안 쓰는 전기 콘센트는 빼놓기, 할 수 있는 만큼 채식하기, 노키즈존이나 인종차별, 장애인 차별 등의 문제에 “옳지 않다”라고 꾸준히 발언하기 등이 있다. 만약 요즘 일상이 조금 버겁다면,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해내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있다고 인식한 시점에서 이미 반은 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자.



이 글을 쓰는 와중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출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쓰던 글을 뒤엎고 막막한 마음으로 다시 첫 글자부터 써 내려갔다. 글을 쓰면서도 계속 우울했다. 내가 백날천날 노력해 오고 연구하며 꿈꾸던 희망에 누군가 세상이 그렇게 변화될 리 없다고 핵 문은 침을 뱉은 기분이다. 요즘 유행한다는 기후우울증(climate anxiety)가 나에게도 찾아왔나 싶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 또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기지 않더라도 일단 믿어야 뭐라도 할 기운이 생긴다. 우리의 내일이 지나온 어제보다 나을 수 있게, 지금 이 순간 뭐라도 해야 한다. 포기하지 않아야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정말 더 나은 내일이 올 것이다. 마치 내 어린 시절 백일장 주제였던 오존층이 지금은 여러 노력을 통해 복구된 것처럼.

글쓴이 소개 **사이준 코**



사이준은 네덜란드어로 계절을 뜻합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닉네임에 담아보았습니다. 일년의 80%가 추운 네덜란드 북부에서 살고 있으며, 집에서는 요리박사 주부, 밖에서는 윤리경영, 지속적 경영을 연구하고 있는 박사생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조종사
‘나의지금’

외국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며 조종사가 되기 위해 꾸준히 준비했다. 이제 날개를 펼칠 일만 남았다.

‘외국 항공사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한국인 여성 조종사가 있을까?’하고 찾아보다가 연락을 드리게 되었어요. 승무원으로 비행하는 처음 1년 동안 내 일터를 정말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아무리 피곤하다가도 비행기 안에 들어오면 없던 힘이 생기고 일이 재미있었어요.



비행기 손님이 되어 비행하는 업무.
비행기에서 일하면서도 비행기에 타는 일이 아직도 좋다.

그러다가 조종사로 눈을 돌리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다니는 항공사에서는 한국보다 제법 많은 여자 조종사가 이미 일을 하고 있으셨어요. 그때 그들에게서 보이는 차분함, 당당함에 반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비행기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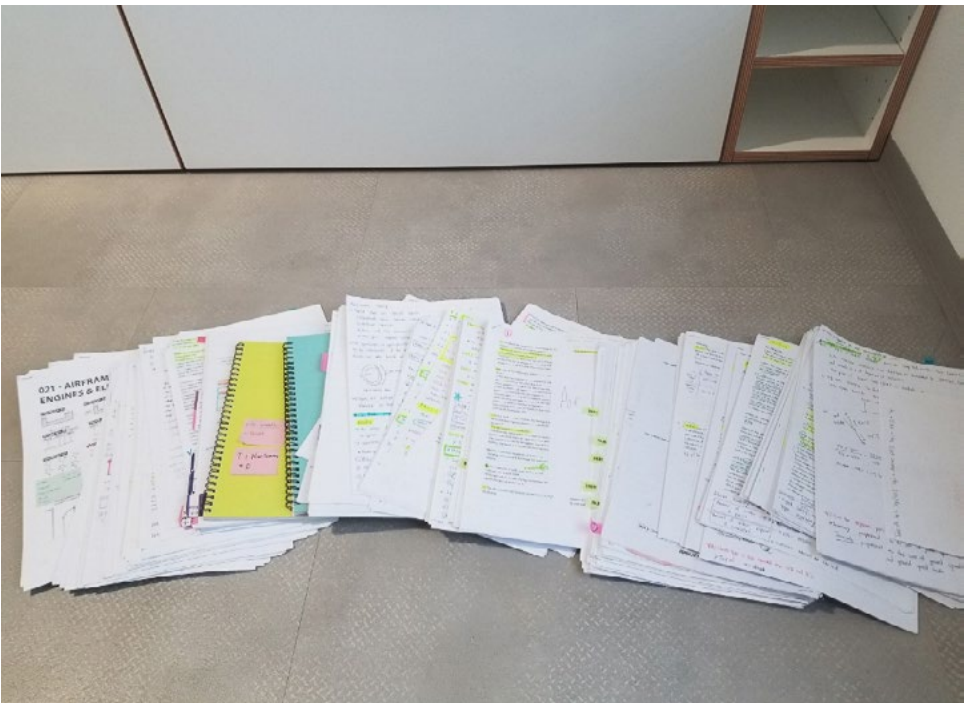


처음 비행을 시작했던 정겨운 Brno 공항

승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조종사 시험 준비를 병행하신 것이죠? 휴가 때 가족들을 보러 한국으로 가거나 여행하는 건 꿈도 못 꿔어요. 모든 휴가 일정을 조종사 시험을 치르

는 날에 맞췄어야 했거든요. 그때를 요약해 보면, 비행-잠-먹기-공부의 반복이었어요. 해외 비행을 마치고 주 거주지로 돌아와서도 집안일을 외면한 채 공부에 매달렸어요. 고맙게도 그때 함께 숙소 생활했던 동료들이 많이 이해해 줬어요.

블로그에 올리고 계신 이야기들을 읽어 보니, 시험 준비 과정이 녹록지 않으셨더라고요. 비행 학교에서 총 14과목을 통과해야 하는 ATPL (Airline Transport Pilot License) 시험에 관련된 규정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아서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허무했어요. 시험에 집중하려고 이미 퇴사까지 결정했고, 300만 원에 달하는 수업료나 그것을 위해 쓴 시간 등 모든 걸 반복해야 했으니깐요.



ATPL 시험을 두 번 다 치러내고 난 흔적

도미노 블록 몇 개만 더 쌓으면 완성인데, 누가 모르고 건드리는 바람에 그동안 쌓아온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속상했지만,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시험을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제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공부 말고는 따로 더 하고 싶었던 것도 없었고요.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 속상하제. 근데 그거 아니, 아인슈타인은 뇌의 불과 몇 퍼센트만 쓰고 죽었대. 그러니까(너도) 할 수 있다.” 저와 아인슈타인은 급이 다른 사람이지만, 이 말과 함께 웃으며 다시 해 보자는 힘이 생겼어요.

승무원으로 일하시는 동안 같은 비행기에서 일하는 조종사분들께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셨나요? 조종사 시험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승무원으로서는 프리미엄 클래스(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 30분에 한 번씩 조종실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도 맡았는데, 좋은 기장님과 부기장님들이 계시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기내에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끝내놓고 조종실에 들어가면, 그분들이 참고하기 좋은 책이나 자료들을 보여주시면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조종사 시험공부를 하실 때 비행 학교의 여성 비중은 높은 편이었나요? 제가 비행하던 2016년엔 비행 학교에 10명 넘는 여성분들이 있으셨어요. 비율로 치면 10~15% 정도였던 것 같아요. 반대로 승무원은 90%가 여성이고요.



비행 전 안전 점검

승무원과 조종사, 성별 비중이 완전히 다른 두 환경을 경험해 본다는 건 어떤 일일까요? 각 자리의 노고를 알기에 중재자이자 대변인 같은 역할을 종종 하게 돼요. 처음 승무원이 되고 조종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이크와 헤드폰을 통해 그들만의 암호를 주고받으며, 종이에 알아볼 수 없는 뭔가를 기록하고, 자동 비행이 관여된 상태에서 버튼만 누르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조종사 과정을 공부하고 나서는 다르게 보기 시작하셨겠네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지

상과 하늘 사이 교신은 필수고, 그 모든 과정은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반대로 가끔가다 ‘승무원은 기내에서 밥과 음료를 전달하는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조종사들이 있어요. 원하는 것을 승무원이 바로 가져다주지 않으면 냅다 소리를 지르거나요. 그럴 땐 제가 조종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로 보이지 않겠지만, 기내에서 얼마나 승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지 설명해 줘요.

성별 비중이 다른 직업 환경이기에 생기는 사건만은 아니군요. 같은 비행기 안에 겨우 문 하나 두고 있을 뿐인데, 오해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생기더라고요.



휴가 동안 남아공에 가서 첫 비행을 해본 날

승무원에서 조종사로 직업을 전환하시는 것도 경이로운데, 더 놀라운 건 2012년에 항공 회사의 승무원으로 입사해서 한 번의 자발적 퇴사, 한 번의 해고, 그리고 같은 회사

에 한 번 더 재입사한 후에 조종사 시험을 봐서 2022년에 합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퇴사는 제가 결정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에 기분 좋게 회사를 떠날 수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타의로 해고가 되었을 때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어요.

10년 동안 나에게 무엇이 달라진 것 같으세요? 가장 큰 변화를 꼽으라면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제 모습이에요. 처음에 승무원으로 입사했을 때와 업무 환경이 매우 달라요. 그때는 입국 때 필요한 서류들도 회사가 준비해 주고, 심지어 숙소 앞까지 출퇴근 버스를 보내줬어요. 비행에 나갔을 때도 규정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 했을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뒤에 의견만 잘 전달하면, 최종 의사 결정은 부사무장, 사무장, 기장이 했으니까요.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타워와 교신을 하고 있다.

이제 직접 결정을 내려야 하시군요. 조종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도 어느 공항으로 갈지, 몇 시에 이륙할지, 어떤 경로로 갈지, 몇 피트의 고도로 비행할지 결정 내리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밖에 장기 비자 준비나 집을 찾는 일 등 해외 생활의 기본적인 준비를 이제 알아서 하려고 하니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어떤 방법들을 시도하셨어요? 예전엔 비행할 때마다 교관님들을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교관님이 “내가 열람하는 정보와 네가 열람하는 정보가 같고, 같은 비행을 하는데, 왜 너의 결정에 확신을 내리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을 짚은 말이었네요. 맞아요. 결정된 것을 수동적으로 따르는 환경에 있다가 주체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니, 제 의견에 확신이 서지 않았었나 봐요. 그 말을 계기로 ‘마음을 굳히면 밀고 나간다.’고 생각해요. 참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고려하고 내린 결정인 걸 스스로 아니까. 혹여나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내가 책임진다고 의식하게 됐어요.

조종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비행기를 이륙시키고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준비해요. 같은 하늘에 있는 다른 조종사들과도 지켜야 할 규율과 법이 있고요. 계획한 대로 비행이 끝이 나면, 그 뿌듯함

이 아주 커요.



석양이 지는 시간대의 비행

승무원은 물론, 조종사도 절대 긴장을 잃지 말아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일상에서 이 남아있는 긴장을 어떻게 잘 다스리시나요? 비행 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날엔 자는 시간도 뒤죽박죽되기 마련이에요. 그럴 땐 ‘회복의 날’을 만들어요. 암막 커튼을 꼼꼼 여미고, 모든 휴대기기가 울리지 않도록 꺼놓고, 원 없이 자요. 그리고 일어나서 생각났던 한식 한 끼를 내 손으로 요리해서 그릇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먹어요. 이렇게 회복해야 긴장이 풀려요. 이러면 또 다음 비행을 잘 소화할 수 있고요.

승무원일 때 함께 일하던 동료들 조종실에서 훗날 만나게 된다면 기분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느 동료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Don’t ask me cappucino with 2

brown sugar ON GROUND. HELP YOURSELF!(언니, 지
상에서 나한테 흑설탕 두 개 넣은 카푸치노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지 마. 알아서 하기!)”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음료는 제 손으로 만들겠
습니다.

브런치

공항 지상조업 서비스가 오기 전, 격납고에서





여행기를 쓰면서 지나간 날들을 다시 살고, 관련 조사를 하며 가기 전에는 물론 머물 때도 몰랐던 것들을 뒤늦게나마 주섬주섬 배웁니다. 예컨대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4번째로 많은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18,30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다 합친 면적이 한국의 19배나 되지만 그럼에도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니라는 것들이요. 그중 여섯 섬에서 두 달을 떠돌고 나니 온갖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뒤섞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생겨버렸습니다.

호스트가
손수 지은
대나무집

테테바투의 대나무집

시간여행이란 이런 것일까? 이박삼일을 이고 지고 올라야 정상에 다녀올 수 있다는 린자니산 언저리의 대나무집에 머물며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추억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장면을 자주 마주쳤다. 롬복, 특히 그 대나무집 주변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더운 날 발을 담글 수 있는 시원한 물이 흐르는 작은 폭포와 맑

린자니 산과 계단식 논



은 물줄기가 흐르는 피서지. 군데군데 바나나와 야자수가 자라는 싱그러운 초록빛 계단식 논밭과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함께 모여 손수 모내기하는 어른들과 오두막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논 한쪽 귀퉁이에 놓인 양철 주전자와 접시에 남은 쌀알을 주워 먹는 도마뱀. 시간의 흔적이 묻은 구멍가게들과 해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동네 사람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닭들과 코뚜레 묶인 소들과 조심스러운 고양이들.

발리에서는 인간이 원숭이에게 먹이를 주고, 롬복에서는 원숭이가 인간에게 먹이를 준다. 수줍음이 많아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검정 원숭이 무리를 만나기 위해 로비는 다른 가이드 친구에게 전화해 실시간 위치를 알아냈다. 너무 멀리 있어 형태만 아련히 보이는 검은색 긴 꼬리가 아래로 축 쳐진 원숭이 가족을 올려다보고 있을 때, 원숭이가 먹으려고 딴 베리가 아래로 떨어졌다. 내가 열매 맛을 궁금해하자 로비가 그걸 주워주었다. 블루베리만 한 크기의 단단한 야생 열매를 조금 깨물었다. 뚝고 거칠고 새콤한 과육을 씹다 보니 작은 알갱이들이 툭툭 터지면서 향긋함이 조금 느껴졌는데 또 먹고 싶은 맛은 아니었다. 우리가 열매 맛보는 걸 보고 나누어준 건지, 그저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는 아무래도 모르겠지만 원숭이 쪽에서 우리 쪽으로 또다시 베리가 떨어졌다.



원숭이가 나눠준 야생베리

누렇게 익은 버를 양손 가득 움켜쥐고 냅다 땅에 내리치며 쌀알을 털어내는 광경을 볼 수 있는 천혜의 섬을 즐기기 위해 감내할 것도 있다. 심심찮게 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제쳐두고도 쓰레기 태우는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지독하다. 로비는 인도네시아 남자 90%가 흡연자라고 했다(통계는 70%). 롬복은 독실한 무슬림들이 사는 ‘천 개의 모스크’ 섬으로 유명한데, 모스크는 동틀 무렵부터 하루에 다섯 번 확성기로 기도 소리를 내보낸다. 보통은 10~20분이면 끝난다는 기도가 그 동네에서는 체감상 두 시간 정도 이어졌다. 여행하며 둘러보니 공사 중이거나 이미 지어진 모스크가 다섯 집마다 하나는 있는 것 같았는데 찾아보니 실제로 무

려 팔천 개가 넘는 모스크가 있다. 덕분에(?) 무거운 눈꺼
풀을 부여잡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기도, 마지막 날 그곳
을 떠나기도 수월했다.

숨 막히게 아름다운 롬복의 폭포



아주 작은 섬에서의 나날



여유로운 길리

해안가를 따라 두세 시간여를 걸으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작은 섬. 자동차는 없고 바다거북이 유유히 노니는 새파란 바다와 해변 가까이 산호초가 살아있는 섬에 차마 안 가고 배길 수 없었다. 발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지만 롬복에서 훨씬 가까운 세 섬, 트라왕안, 메노, 아이르. 윤식당 촬영지로 알려진 트라왕안은 셋 중 가장 큰 대도시, 메

노는 덜 발달된 순박한 시골, 아이르는 그 중간 어딘가, 모든 게 적절히 섞인 소도시 같다. 도보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섬의 주요 이동수단은 마차와 자전거인데 요즘엔 전기자전거와 개조한 전기 스쿠터도 다닌다. 마차를 타지 않기 위해 선착장에서 가까운 숙소를 선택했다. 동물권에 예민한 관광객들이 많은 모양인지 부두 근처 한쪽엔 말들의 복지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는 안내판 같은 것이 보여주기식으로 붙어있다.



여기저기 널린 산호 조각들



아름다운 산호 조각 발견!

바다 건너 롬복이 먹구름으로 가득 덮인 날에도 길리는 언제나 화창하고 따사로웠다. 모래사장은 하얗게 변한 산호 조각과 조개껍질로, 바닷물 속은 살아있는 산호초와 크고 작고 화려한 열대지역의 물살이들로 가득하다. 죽은 산호 조각과 해초로 가득한 물속 바닥은 발 딛고 물놀이하기엔 영 별로지만 물이 빠지면 꾸물대는 생명들로 구경거리가 풍성해진다. 천천히 걸으며, 가만히 서서 지켜보면 불가사

리, 성게, 납작한 바다 민달팽이, 소라게, 작은 물살이들이 저마다 꾸물꾸물 바빠 움직인다. 유명한 바다거북 서식지답게 거북이 물속과 부두 근처에 출몰하고, 여기저기 거북이 나타난다는 표지판과 함께 스노클링 장비 대여점이 늘어서 있다. 메노에는 거북 ‘생추어리’가 있다는데 알고 보니 아기거북을 납치해 관광객들에게 돈을 받고 ‘방생하게 하는’ 곳이어서 씁쓸했다.



1일 1 코코넛

푹 자고 조식 시간이 끝나갈 즈음 일어나 수영복 차림으로 스노클링 장비를 챙겨 해변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코코넛 워터와 과육을 퍼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해변을 산책하

며 예쁜 산호조각과 조개껍질을 주워 감상하고 특히 마음에 드는 것들은 사진으로 수집한다. 아직 초보인 스노클링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까지만 가는데 굳이 배를 타고 나가지 않아도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살이들을 볼 수 있어 좋았다. 하루는 해초 뜯는 거북의 찬란함을 삼십 분 넘게 관찰하고 다음 날 앓아눕고 말았다. 썰물 땀 한참 산책하며 부드럽게 움직이는 생명체들을 두 눈과 카메라에 담는다. 해 질 녘에는 섬의 서쪽으로 걸어가 자리를 잡고 저녁을 먹으며 석양을 즐긴다. 누구는 길리섬이 작아서 3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세 섬을 요리조리 돌며 2주를 보내고도 떠나기 아쉬웠다.



길리메노의 석양

발리의 n가지 얼굴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여기를 못 와서 안달인지 알 것도 같았다. 꽃나무가 곳곳에서 자라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의 유일한 힌두섬. 색색깔 다양한 패턴의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전통악기의 영롱한 소리, 집집마다 놓인 손바닥만 한 꽃바구니와 섬 전체에 진동하는 향 피우는 냄새. 찬디다사에 머물며 온 좋게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어떤 마을의 크레메이션 세레모니(화장 의식)를 관찰할 기회가 있었다. 건기임에도 비가 내려 다들 조금은 서운한 눈치였지만 뽕송뽕송한 어린이들, 세상의 풍파를 겪어낸 어르신들 상관없이 모두 사롱을 곱게 챙겨 입고 오랫동안 준비한 행사를 즐겼다. 야자수잎에 솟으로 힌두 신 세밀화를 그리고, 직조로 스카프 따위를 만드는 수공예 장인들이 살고 있는 전통가옥 마을은 관광객이 줄어 힘겨워 보였다.

좀처럼 빨래가 마르지 않는 촉촉한 열대우림 기후의 우붓은 밝은 황토색과 거멓게 색이 바래는 회색 돌로 지어진 사원 같은 집들 안팎으로 고사리와 박쥐란 같은 열대식물이 번성해 신비로운 분위기를 뿜어낸다. 바깥 양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양 혹은 안쪽 바로 한가운데에 코끼리 모양 가네샤 동상이 지키는 유난히 좁은 대문으로 들어가면 여러 집이 모인 작은 공동체가 나온다. 사진에 목숨 거는 관광객들과 음식 귀한 줄 모르는 원숭이들로 우글우글한 몽키포

레스트와 입을 짝 벌린 동굴로 유명한 고아가자 사원은 신이라고 해도 믿을법한 모습의 거대한 나무들이 훨씬 인상 깊었다. 토요일엔 우붓 마켓 근처에서 전통춤 공연 표를 샀다. 귀에 꽃을 꽂은 남자들이 몽환적인 발리 전통음악을 연주하고 화려하게 꾸민 여자와 남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춤을 추었다.



야자수에 힌두 신 세밀화



전통가옥 내부



우붓 가네샤 동상이 지키는 좁은 나무대문



사람들로 가득한 울루와투 사원

발리에는 파도타기, 스쿠버다이빙, 열대우림, 사원, 계단식 논, 전통 공연, 요가, 생채식, 수공예, 쇼핑, 파티, 그 이상이 있다. 때문에 숨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의 뒤편은 관광객들로 미어터진다. 인파로 인해 일출 등산코스는 정상까지 줄을 서서 올라야 하고, 해 질 녘의 울루와투 사원 안에서 휴대폰은 신호를 잃는다. 파도타기 좋다는 해변은 전부 서핑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고, 험하게 운전하는 택시와 교통 체증 때문에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멀미로 고생했다. 코로나로 몸살을 앓았던 세계인이 사랑하는 관광지의 장사꾼들은 그동안의 손해를 메우겠다는 작정인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바가지를 씌우려고 들었다. 그럼에도 알알이 동그렇게 깎인 모래가 있는 드림랜드 해변과 아늑한 비건 영화관 그리고 템페가 있는 발리에 언젠가 다시 간다면 그날은 꼭 비성수기일 것이다.

[발리 크레메이션 영상](#)

[길리 바다생태 관찰기 영상](#)

[발리, 길리, 롬복 비건 여행기](#)



가 크 러 크 드 | 가 나 | 으

오 가 나 러 나

시 미 크 오 | 가 가

가 오 러

시 나 테 크 오 | 가 가

나 가 러

여자는 아이를 낳고 또 한 번 이방인이 된다.

이방인 여자는 아이를 낳고 또 한 번 이방인이 된다. 그녀가 알고 속해있던 이방인의 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그곳은 소박한 멋, 윤리적 취향, 개인주의적 자유, 진취적인 커리어 같은 가치들을 향유한다. ‘힘들다’ ‘외롭다’와 같은 이방인들의 외침 속에는 자신만의 길을 곧바로 응시하며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배어 있다.

여자는 이방인인 게 좋았다. 막막한 느낌이 좋아 자꾸 여행을 떠났고, 여행을 떠나지 않을 땐 여행자들을 만났다. 그러나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여자의 삶은 그 사회가 그려놓은 궤도로부터 벗어나 있다. ‘친환경 소비’를 외치던 그녀는 이제 ‘육아는 아이템발’을 외치며 아마존 프라임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플라스틱 육아용품을 한가득 사들인다. 친구와의 약속에는 20분씩 늦게 나오면서 아이의 낮잠 시간이 다가왔다며 서둘러 자리를 뜬다. 지저분한 머리를 달고선 커리어는커녕 당장 내일의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변화된 모습을 자신조차 이해할 수 없는데 누가 공감하고 관심 가져줄까. 굳이 공감받고 관심받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아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역시 서운한 일이다.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며

그녀가 타지에서 느끼는 막막함을 좋아했던 건, 그래서 여행을 많이 했던 건, 막막함 속에서도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곤 했기 때문이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이야.”라고 여자는 말하곤 했다.

그녀는 정말이지 어디서든 기회를 만들고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에서 디자인 전공을 할 때는 공모전만으로 생활비는 물론 등록금도 벌었다. 독일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국제결혼을 주제로 블로그를 시작하고선 금방 인플루언서가 되었다. 일본에 갔을 땐 3개월 만에 부족한 일본어 실력의

로 현지회사에 채용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7년이나 대학 강사로 일했다. 중국과 인연이 없었음에도 장춘대학교 디자인 학과의 제안을 받아 매년 출장 강의를 했다. 물론 운을 자기 것으로 만들 실력과 노력이 뒷받침되니까 가능한 이야기도 하다.



중국 장춘대학교 수강생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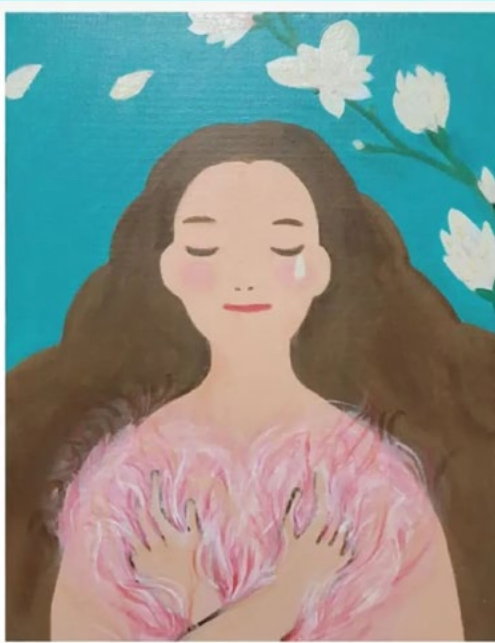
여자는 운이 좋은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운을 함께 하는 이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나도 운을 나눠 받은 사람 중 하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로부터 좋은 운을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다. 지금도 배움의 순간을 선명히 기억

한다. 별이 좋았던 어느 봄날 브루클린에서였다. 벚꽃구경 하랴 그래피티 구경하랴 정처 없이 걸어 다니고 있을 때 그녀는 별안간 소리치며 강충 뛰었다. “아. 행복하다!” 특별한 사건 없이, 대답으로서가 아니라 순수한 표현으로 행복을 선언한 사람은 인생에서 그녀가 처음이었다.

여자가 막막함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 것은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면서부터다. 임신단을 받은 시어머니와 가까이 있고자 독일의 작은 도시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많은 젊은 부부가 그러하듯 가족의 끈끈함이나 생명의 소중함 같은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를 잘 키워낼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 앞에서 그녀는 더 이상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일은 어디든 어떻게든 결국 찾게 되어있거든. 그런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 이제 막 이주해 언어도 통하지 않고 친구도 만들지 못한 그녀는 의사의 권유로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다. 두 번째 유산 때 병원은 여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그녀의 품 안에 싸늘하게 식어버린 작은 아이를 눕혔다. 아이 갖기를 시도한 지 4년째 되던 해였다. 병실에서 작은 아이를 안고 쓰디쓴 눈물을 흘리던 밤, 보름달이 유난히 밝았다. ‘다 괜찮아질 거야’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The healing flower

치유의 꽃



조주연

작은 개인 전시회

2021년 10월 15일 - 22일까지 르봉방

JOOYEON CHO

SMALL SOLO EXHIBITION

2021.OCT.15 - OCT.22

한국에서 열었던 개인전 <치유의 꽃>

여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보름달의 위로를 기억했다. 그 기억을 담아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의 이름은 ‘치유의 꽃(The Healing Flower)’. 독일에서 경험한 인종차별, 고독, 절망, 우울, 시험관 시술의 고됨, 유산의 아픔을 그녀와 그녀를 닮은 여성들의 초상화 위에 담아냈다. 전시회를 마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시도한 시험관 시술에서 그녀는 지금의 16개월 장난꾸러기 아이를 얻었고 곧 둘째가 태어난다. 첫째 아이를 갖기 위해 5년의 시간과 두 번의 아픔을 겪어야 했지만 둘째는 선물처럼 계획도 없이 찾아왔다. 아이를 갖는 일에 의지와 노력은 정말로 상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었다.

다시 찾은 뉴욕에서 나는 여자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유모차를 밀며 뉴욕의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20대의 꿈과 낭만과 사랑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맨해튼의 격자판 위에서 유모차 바퀴는 분주히 선을 가로지르며 굴러갔다. 나의 걸음은, 유모차의 리듬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아이의 것도 아니었다. 돌을 치르고 이제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고, 아이의 잠패턴을, 식성을, 성향을 파악했노라고, 그래서 여행도 무리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기 무섭게 아이는 또 한 번 격동의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예측할 수 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아이가 졸린지, 지루한지, 배고픈지 확신할 수 없는 채로 유모차를 밀었다. 아이를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것 역시 나의 의지와 노력 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나의 의지처럼 풀리지 않을 때 여자들은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만 같은 위기감을 겪는다. 뉴욕에서 새로이 영감을 받고 직업적 미래를 구상해 보겠노라는 나의 야심은 뉴욕의 높은 빌딩 골뚱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처럼 빠르게 저편으로 사라져 갔다.

지금은 프랑크푸르트에 살고 있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잘 준비를 하는 듯 누워있었다. 이제 막 아이를 재우고 난 뒤라 했다. 화면 아랫 편에 불룩한 배를 보고서야 둘째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해 냈다. “뉴욕이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림다.” 여자는 내가 뉴욕만큼이나 기억 저편에 있는 존재인 듯 나른하고 느릿

하게 반가움을 표현했다. 나는 다짜고짜 그녀에게 물었다.
“그래서 꿈은 어떻게 됐어요. 꿈. 잘 지키고 있어요?”



집 한편에 만든 아틀리에 J 화실

사실 그녀의 꿈이 뭔지 몰랐다. 아마 그 순간 내가 의미한 ‘꿈’은 그런 거였을 것이다. 내가 내 삶을 온전히 계획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나의 미래를 믿어주는 ‘그릿 (grit)’. 막막함에 잠식당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그녀라면 놓치지 않고 있을 것 같았

다. 그래서 유난히 지쳤던 오늘, 나도 덕분에 희망을 얻어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아틀리에 J 화실을 찾은 수강생

“무서워요. 경력 단절이 될 것 같아서.
아니. 이미 된 건지도 모르죠.”

행복을 선언했을 때처럼 여자는 과감히 공포를 선언했다. 강충 뛰던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서슴없이 터져 나온 ‘경력 단절’이라는 단어 앞에 나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첫 아이를 가진 뒤에도 꾸준히 중국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이어갔다고 했다. 미술교육 석사 경력을 살려 집에서 지역 주민을 상대로 화실을 운영했다. 8세에서 60세까지 코로나에 고립된 이들이 찾아와 텅 빈 마음에 알록달록한 색을 채워 입히고 돌아갔다. 한국에서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아이 두 명을 키우는 동안 무언가를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신도 체력이 받쳐줘야 의미가 있죠. 지금은 걸음마에 맛 들인 첫째를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숨이 찬걸요. 둘째를 낳으면 또 얼마나 졸음에 시달리겠어요.”

‘왜 둘 다 못해. 아기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은 여자가 커리어우먼이라기보다는 원더우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말처럼 아이를 갖는 것과 커리어를 쌓는 일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한 여성이 아이를 갖는 일에 집중하기로 택한다고 하여 일을 포기하는 것도, 일에 대한 야망이 없는 것도, 자신만의 서사를 포기한 인간으로 ‘영원히’ 변화한 것도 아니다.



아틀리에 J 화실 수강생들의 작품

전공을 살려 독일에서 독일 미술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큐레이터가 되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한 2-3년 뒤부터는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려면 독일에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해서 쉬운 길은 아니겠지만요. 여자는 대화 위에 살포시 자신의 포부를 엮었다. “그런데 독일 그림이 좀 어두운 게 많아서 한국 시장에 잘 팔릴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라고 여자가 농담을 할 땐 나도 받아쳤다. “지금 이 대화가 딱 독일 그림 같았는걸요.”

그 시절 여자와 내가 뉴욕을 좋아했던 건 그 도시가 특별한 꿈이나 목표가 없어도 괜히 뭔가를 이뤄내고 있는 사람

이 된 것만 같은 흥분을 선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다. 목적지 없이 길을 걸었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몰랐다. 지금의 우리는 목적지도 있고 꿈도 있지만 또다시 방황 중이다. 목적지가 있어서 이 방황에 더 조바심을 내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들 다빈과

여자는 말한다. ”아이를 열 달 동안 품는 것처럼 살면서 오랫동안 품어내야 할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조바심도, 당장 펼쳐내지 못하는 꿈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낯설고 고독한 순간까지도요. 해야 할 것이 있지만 해

내지 못하고, 바람이 있지만 바람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살아내는 법을 아이를 키우며 매일 조금씩 배워가요. 때로는 돌아가보고, 또 때로는 조금 더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이 더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누군가가 서슴없이 ‘경력단절’이라고 부를 이 시간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무언가 중요한 걸 품고 있는 시간일 거예요.”

인터뷰이 소개 **조주연**

인스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쌍둥이 고양이 두 마리 미아&미미와 에너지 넘치는 16개월 아들 다빈을 키우며 아뜰리에 J를 운영 중이다. 둘째 출산을 실시간 대기 중이다. 현재 두 가지의 꿈을 꾸며 살고 있다. 하나는 독일에서 아트 큐레이터로 성장하는 것, 다른 하나는 아이들과 세계일주를 하는 것.

Thank you!

투룸매거진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사는 이방인들의 다채로운
일상 이야기는 다음 달에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to be continued...



어떤 기사가 가장 인상 깊었고,
어떤 문장들이 특별한 위로가 되었나요?
함께 공유해 주세요!

투룸 독자 게시판





발행인
에디터
객원 에디터
일러스트

차유진 손원진
김은지 미지수 박예진 부소정 정혜원 주원 테일러 차유진
사이준 코 유연주
김은지 @silvermeaning
김현지 @myfavworkof.art
손원진 @yeodn
류주영 @ryujooyoung
김수림 @soorimmkimm
장성하

디자인
커버 이미지

본문과 제목에 아래 서체들을 사용했습니다.

[한글]

을유1945
Noto Sans KR
카페24
박물관 문화재단
지마켓 산스
가비아 마음결
네오 둥근모
평창평화
웃찬
상주경천섬
창원단감아삭
함박눈
빛의 계승자

[영문]

Gilroy
Impact
Tokyo Dreams

웹사이트

트위터

인스타

뉴스레터

투룸 라디오